
제 7 편
사회단체 활동



제 1 장

사회운동

한 창 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제1절 시민운동

1. 시민과 시민사회

시민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생성기에 나타난 부르조아 계급으로,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과 구별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국가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 까닭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던 그리스에서 시민들의 공동체는 노예와 외국인을 제외한 시민들의 정치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시민사회라는 영역은 국가로부터 일정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운동은 자각된 주체로서의 시민이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을 위해 활동을 한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비영리, 비정파 운동이라고 한다.

2. 시민운동과 시민단체

『시사저널』의 2000년도 조사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정치권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 본다. 물론 일제강점기부터 활동을 한 YMCA와 홍사단이 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0년대에 재야 운동이나 민중 운동과 구분되는 시민운동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활동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시민운동은 합법적 방식의 운동이고, 비폭력적 운동, 구체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재야 민중운동은 악법이라고 여기는 각종 법률을 위반해 구속되기도 했고, 권력의 폭력에 대항해 맞서 싸우기도 했으며 독재타도 혹은 민중민주주의 같은 강력한 구호를 운동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오늘날 세계는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있다. 소수의 급진적인 운동보다는 다수의 온건한 운동이, 이념 지향적인 운동보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이, 길거리에서 가두투쟁을 벌이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3. 여수에서의 시민운동

1) 사회 운동과 지역적 특성

(1) 일제강점기

1920~30년 사회운동으로는 야학이나 서당을 세워서 하는 민중계몽운동을 들 수 있다. 교회, 청년회, 자치단 등 단체에서 주로 노동 야학을 세우고, 교회, 학교, 회관 등 기존의 건물을 사용했다. 지역유지들은 개량 서당을 세우고 건물을 신축했던 것이다.

1923년 3월 4일 여수군의 복산, 옥적, 용주, 나진, 왕십, 미평, 시전, 낙포,

맹도, 봉계 등의 교사들은 삼일면 흥국사에 모여 교원연구회를 조직했고, 종전의 개량 서당을 학술강습소로 고쳤다. 동시에 보통학교 과정에 준하는 속성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소라면과 여수읍에서 관선 면장과 읍장을 배척하고, 민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여 도에 제출한 읍장, 면장 배척 운동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쳐 일제 당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수해와 화재,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여수청년회와 여수소년회에서 모금활동을 하여 지역과 전국 각지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물산장려운동과 각 면별로 금주단연이 일어났다.

여수-광주간 철도공사를 하면서 일본인 소유토지에 비해 한국인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려고 하여 여수군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던 사건이 있었다.

(2) 광복 후

광복 후 김영준, 문 균, 김문평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민회'에서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5·16쿠데타로 '재건국민운동'으로 전환하였고, 여기에 정재완, 문 균 등이 참여하였다.

대동청년단 해체에 이어 1949년 결성된 것이 '대한청년단'이다. 군경유족 돕기 활동을 하지만, 1953년 일체의 청년단체가 해산 통합되고 민병대로 흡수되면서 자동 해산된다.

그 밖에도 여수 지역단체는 민족청년단,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 대한노총, 부두노조, 해원노조, 연합노조, 금속노조, 조선노조, 농민조합 등이 있었다.

(3) 5·16군사정변 이후

5·16군사정변이후 주로 국제봉사단체가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리고 로터리클럽과 라이온스클럽, 와이즈멘즈클럽, 여수청년회의소, YMCA가 활동하고 있었다.

여수지역의 독자적인 단체로는 '종교회'가 조직되었다. 애향과 친목단결을 목적으로 여수 토박이들의 모임으로써, 1976년 7월 10일 여수관광호텔에서 서재희, 광기용, 김동기, 정명민, 김영배, 이계은, 유병하 등이 중심이 되어서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에 박종성, 부회장 서재희를 선출하고, 지금까지 주로 지역개발 사업 건의, 향토문화의 보존 및 연구 사업, 효행, 선행 및 지역발전 유공자표창,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행사 등을 하고 있다.

(4)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역할

1980년 군사정부는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재야인사와 학생들에게 총칼과 폭력을 휘두른다. 광주에는, 끔찍하게 총기를 난사해 놓고서도 오히려 광주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시민들이 나서서 맞선 행동을 폭동으로 왜곡 선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주, 목포, 영암, 해남, 순천 등지에서 광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항거를 하지만 여수지역에서는 간단한 규탄 집회조차 열지 못했다.

당시 여수에서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서 광주로 가자는 움직임과 홍사단 회원과 청년 등이 광주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 비밀모임을 갖기도 했다. 정부군이 진압한 이후 부상자를 돕기 위한 헌혈과 모금운동을 여순산업신보사(사장 김충조)를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이 일로 신문사는 폐간이 되었다.

이렇게 여수 지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조용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순사건'에 대한 후유증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부모형제를 잃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식들이 어느 쪽이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순사건' 당시 중학생들이 좌우익 양쪽에서 많이 희생된다. 여수에서는 그 이후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공부 시키지 않았고, 연좌제로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서, 현재 고위관직에 인물이 적은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2) 사회 운동의 태동

(1) 쉽지 않은 사회운동

'여순사건' 이후 우리지역에는 전국적 규모의 관변단체 산하의 지역단체와 봉사운동단체는 있었지만, 사회운동단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946년 창립한 '여수YMCA'는 지금과 달리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이사를

파견하고,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1970년대 들어서 청년부 활동이 활발해진다. 교양, 문화 예술, 취미 생활, 봉사활동이지만, 간혹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논단을 열어서 여론을 만들었다.

1989년 민용기 총무가 취임하면서, 시민사업부를 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최육성 선생이 1969년 여수고등학교에서 흥사단 아카데미를 조직했고, 광주에서 대학 아카데미 활동을 한 한창진이 1976년부터 여수로 돌아와서 고등학생 아카데미 지도와 조직사업을 펼쳤다.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상황에서 외부 인사가 고등학생 이상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학생아카데미를 여수상업고등학교, 여수수산전문학교, 여수여자고등학교,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이어 청년 아카데미를 조직하고, 김충조 여순산업신보 사장 등을 영입한 인사와 흥사단 아카데미 회원 출신들이 모여서 1979년 흥사단 여수분회(분회장 김한중)를 조직했다.

(2)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운동

해마다 5월이 되면 5·18 기념식이 열린다. 노동운동을 하던 이영일은 여수로 내려와 함께 흥사단 활동을 하면서 진보적인 활동을 시작, 독서토론과 같은 학습모임을 하고, 소식지를 내면서 회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활동을 했다.

1970~80년대 대학생들이 현실참여의 하나로 야학운영이 있었다. 여수지역에서 야학은 1976년부터 교대 출신인 수정동 한창진 집에서 여학생 대상 중학교 야학을 연 것과 종화동 새마을 야학, 1984년 여수YMCA에서 운영하는 근로청소년학교 등이 있었다.

지역출신 대학생들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Y 야학에 교사로 많이 참여했는데, 1985년 김점유, 김갑인, 이대성, 김경석 등과 김충조 선거 운동에 참여하였던 최정영, 권동채, 석종철 등이 그들이다.

특히 명지대학교 학내 시위로 제적을 당한 이대성은 민주주의청년연합(민청) 여수지부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고, 이후 각종 집회 사회를 보면서 대중들을 선도한다. 또한 여수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사회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전남대학교에 다니던 장재열, 신동호, 나종훈 등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수에 내려와 여수국가산단 하청기업에 위장취업, 열악한 조건임에도 하청기업에서 노동자 소모임을 하면서 노동조합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1989년 일용직 건설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했다.

이 때 참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노동운동연합(민노, 회장 이정주)'이라는 최초의 노동운동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1987년 5월 17일, 5·18을 앞두고 재야활동을 한 고영근 목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고, 대선 관련 전국적 상황을 공유했다. 5·18에도 끄덕하지 않았던 여수가 1987년 6월 항쟁에 나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여수에도 최루탄이 터진 6월 항쟁

1987년 6월 26일 열기로 한 전국적인 국민평화대행진을 여수와 광주, 전주 등 호남권 7개 도시는 6월 23일에 앞당겨 강행했다. 여수는 교동오거리에서 모여 규탄 집회를 갖고 중앙동 물량장을 거쳐 도심 시가행진을 했다. 당시 참가인원은 1천명 가까이 되었다.

시위대가 진남관에 집결하였을 때, 경찰이 갑자기 최루탄을 쏘아 집회를 이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주도했던 정치인은 경찰의 연행을 피해 몸을 숨기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들은 경찰서까지 진출하면서 투석전을 전개했다.

여수에서 6월 항쟁을 주도한 것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성직자¹⁰⁾와 민주청년, 학생, 노동운동단체 회원들이었다. 또한 한 축으로는 평민련 추천으로 민주쟁취국민운동전남본부 공동의장을 맡은 김충조였다.

10) 은현교회 김정명 목사, 중부교회 임명홍 목사, 동산교회 이계환 목사, 동광교회 신원호 목사

(4)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와 시민단체 창립

1991년 시의원과 도의원 선출 이후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 살림살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요구가 많아진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완성이었다.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여사협'과 같은 사회운동 단체가 정치

적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권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던 운동단체들이 비판보다는 정책적 대안제시와 같은 자치 관련 연구소와 시민단체를 창립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로서 YMCA가 담당하였던 여러 부문과 영역을 YMCA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양한 시민단체를 창립했다.

3) 주요 시민단체 활동

(1) YMCA

여수YMCA는 '한국YMCA운동사'에 보면, 1945년 9월 10일 창립, 초대회장은 이철, 총무는 황진석이었다. 주로 여수읍 교회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기록은 그 해 11월 15일, 초대회장 유종섭, 총무 문명규로 되어 있다.

1946년 9월 25일 공화동 구 교육청 건물을 임대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1962년 고등학교에 하이 Y 클럽을 만들어 농촌 봉사, 수재민돕기, 기독교 학생 활동을 하였다. 회관이 빗으로 넘어가면서 활동은 위축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던 영수학관만 간신히 유지하였다.

시련기를 거쳐 1967년 부임한 이래일 총무가 정순계, 강석원, 윤기철, 김종문 등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1968년 국제와이즈멘 여수클럽이 탄생한 이후 많은 클럽과 지도자들이 Y활동에 적극 참여, 지원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 고교 Y와 청년 Y 클럽이 나서서 다양한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시민대학, 시민논단, 목요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로서 성격을 명확히 찾아 갔다.

1978년 고소동에 회관을 매입하였고, 1980년에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뒤에 상록배움터 전신인 근로청소년학교가 1984년 11월 4일 입학식을 열었다.

1988년 2월 27일 여수시와 산단 기업,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광무동 회관 준공식을 갖고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아기사포츠단을 처음 모집했다.

1980년대 어린이 클럽활동이 1993년 정식으로 어린이 사회교육 실무자를 채용하면서 전문적인 지도가 이뤄지고, 1994년 여천사회교육관이 설립되면서

서 쌍봉지역에서도 어린이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 보호운동은 1992년 6월 18일 16등대(조직) 115촛불(회원)로 발대식을 한 생활협동조합과 1994년부터 시작한 시민중계실이 소비자 주권운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여수시 위탁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 2000년 2월 15일 개소한 여수시청소년상담실, 2001년 6월 24일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다. 자발적인 수요자 중심 사업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청년회원과 이사들 간에 갈등을 겪은 이후, 시민단체로서 시정, 의정감시 활동과 같은 일로 고유의 정체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그렇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1988년 이북 핵발전소 반대 운동, 1992년 공정선거감시단, 5·18 추모행사, 1993년 쌀 개방반대,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대응과 여수권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1997년 북녘동포돕기, 2000년 총선연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등 시민운동을 지역의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이 이태형, 한창진, 천상국, 조동목, 김병호, 오창주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1년 여 준비 기간을 거쳐 1995년 6월 1일 '여수·여천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김충석, 소장 이영일)를 창립했고, 1998년 12월 24일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하 여사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사연은 여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더욱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식 실태조사와 여론조사, 자치포럼, 향토문화답사(매영답사회), 여순사건 실태 조사, 향토 문화유산 연구와 발간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순사건과 지역 문화유산 관련 연구서를 꾸준히 발행하여 지역 운동의 귀한 자료를 남겼다.

또한 매년 10월 19일이면 여순사건을 재조명하여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각종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그 활동 결과가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 (과거사법안) 국회 통과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3) 여수시민협

순수 지역 운동 단체로 1995년 12월 12일 창립한 여천시민협(공동대표 박정수, 이준호)이 있다. 여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던 단체와 개인이 모여서 조직하였다. 당선된 민선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 점검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 단체는 여천시에서는 최초의 시민단체였다.

권혁세, 한창진, 신민호, 이현중, 이상훈, 오창주, 김 향, 정경오, 김삼중 등이 나서서 조직, 시민토론회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답사, 의정지기단, 예산평가단, 부실공사조사단, 교통문화조사단과 같은 시민참여 중심 소모임 실천 활동을 전개했다.

삼려 통합 이후 1998년 '여수시민협'으로 명칭을 변경, 이후 참여연대와 함께 지역운동연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연대회의와 같은 전국, 도, 시 단위 연대 조직에 참여했다. 2002년에 사단법인으로 전라남도에 등록하고, 재경부에 세금공제 기부금모집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1999년부터 아름다운 여수, 살기 좋은 여수, 자랑스러운 여수(아살자) 만들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두툼한 아살자 자료집을 펴내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60회가 넘는 시민토론회를 비롯하여, 여수 곳곳을 답사하는 문화관광 답사, 주요 인사 초청 시민자치학교, 『여수시대』발행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4)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5년 순천에서 경실련 활동을 하던 여천 출신 신현일 변호사와 주승용 여천군수 등이 '여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을 창립하여 예산낭비 감시 활동과 사회복지활동,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제정의실천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삼려 통합 이후 '여수경실련'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활동하다가 1999년 3월 4일 재 창립(공동대표 김행길, 종삼스님)을 통해 활동력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예산낭비감시활동과 부정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지방행정과 의정감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장군도 가꾸기 사업, 기업의 지역 기여도 평가, 장묘문화 개선운동, 지역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 예산낭비 감시 운동, 축제 모니터, 정보 공개 모니터, 어린이공원 가꾸기 등을 하고 있다.

(5) 그 밖의 단체

1996년 여수국가산단 근로자들이 나서서 지체장애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과 근로자 작품전, 사회 참여 활동, 자원 봉사 활동 등을 하기 위한 새시대공단연합(회장 윤봉균)을 창립하고, 삼려 통합에 적극 앞장섰다.

2006년 10월 27일 김영채, 서진연, 우진곤 등이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 지역 발전에 힘쓰기 위해서 여수 참여자치연대를 창립했다.

제2절 노동운동

1. 노동조합 현황

여수국가산단이 있는 여수는 비교적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현재 노동조합 수는 86개이고, 그 중 여수시에 등록된 것은 50개, 전라남도 2개, 노동지청 34개이다.

상급 단체 가입 여부를 보면 한국노총 소속이 45개, 민주노총 34개이며, 미가입한 조합도 7개이다. 조합원수는 13,918명이고, 그 중 남자는 13,637명, 여자는 394명으로 가입 비율은 전체 21,984명 중 63.3%이다.¹¹⁾

11) 2007.12.31. 현재 여수시 청 파악 자료

2. 주요 노동조합 활동

1) 항운노동조합

(1) 침탈 물자 수송하는 일제 강점기 하역 노동

여수는 일본이 대륙 침략의 목적으로 광주-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철도를 부설하면서, 신항을 축조하였다. 주요 군사 물자 등과 생필품, 철광석등의 원료를 선적·하역하는 요충지로서 하역노동자들이 일제에 고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2) 구호 물품 하역 중심 광복 이후 하역 노동

1952년 대한노총 여수지구연맹 여수부두노동조합을 창립하여 초대위원장으로 문 균을 선출했다. 현재의 구항 인근 부두에서 부산, 완도 정기여객선과 잡화선에서 수수, 겉보리 등의 곡물과 구호물품 등을 하역작업하고, 인근 도서연안 여객선 생필품 등 하역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3) 새롭게 변신하는 1960년대 이후 하역 노동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5월 21일 발표된 정당 사회단체 포고령 제6호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과 함께 해체 되었다. 이를 다시 10월 26일 전국부두노동조합 여수지부를 결성하고, 김한모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주로 항만분야는 물동량의 종류가 무연탄, 양곡, 유류(드럼통), 시멘트, 대나무 등이 주류였고, 농수산물분야는 수산물 위주의 하역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1980년 9월 19일 정부의 노동조합 운영지침 지시로 전국항만노동조합과 전국운수노동조합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지금의 전국항운노동조합을 발족했다.

그 해 12월 31일 노동조합법 개정공포로 산업별노동조합체제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제도로 변경, 다음 해 1981년 2월 28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여수항운노동조합 제 1차 대의원대회를 실시했다.

1983년 3월 26일 삼일항 낙포부두와 남해화학 비료 상·하차를 하는 노동자들이 여수종합항운노동조합을 설립했다.

(4) 성장하는 1980년 이후 하역 노동

여수는 1975년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공단이 입주하는 공업도시, 어획량 위판액 전국 제2위의 수산도시이다. 항만분야로는 낙포부두, 중흥부두, 사포부두의 잇따른 설비로 여천석유화학산단 기자재 운송 및 하역을 시작했다.

1990년대 말에는 대북비료와 쌀 등 물동량이 확보되는 시기였다. 농수산물분야는 1978년 국동어항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풍부한 어업자원을 바탕으로 각 지역으로 출하되는 수산물의 하역, 상차 작업과 수산물가공품 등 일본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5) 위기를 맞은 2000년대 이후 하역 노동

현재 여수항운노동조합은 항만, 철도, 수산물 시장에서 하역을 하고 있다. 여수항의 물량이 갈수록 적어서 일감이 줄어 부득이하게 신항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신항 부두로 유치되면서 개항 80년 여수항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다.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무역항을 포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계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분노했다.

2) 건설노동조합

(1) 태동기 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

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의 탄생은 1987년 11월부터 당시 10여 명의 배관·용접사를 중심으로 '선후회'라는 모임을 통해 준비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1988년 3월 현장 반장들을 포함해 30여 명으로 확대되면서 정식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합의하였다.

당시 배관반장인 이 철을 '여천지역일용공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

로 추대하고, 서울의 빈민운동단체, 청계피복노조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창립을 준비했다.

1988년 6월 25일 공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출범식을 하였으나 준비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혼란이 생겼다. 봉계동 531번지에 약 6평 규모의 조합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상근 인력도 배치하였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압력으로 초대위원장이 선출된 지 보름도 안 되어서 사퇴했다.

결국 호남에틸렌 2공장 건설노동자들이 조합의 도움 없이 파업을 하는 등 우여 곡절 끝에 12월 18일 여수YMCA에서 100여 명이 모여 비상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이때 명칭도 '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 바꾸고,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요구했다.

(2) 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 합법화

여천지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조합활동 자유보장 등을 내걸고, 1989년 1월 23일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사 측이나 정부에서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월 31일 1천여 명 조합원들이 30여분 동안 석창사거리 산단 입구 도로를 점거, 농성을 하였다. 여천시청 진입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점거 농성에 들어가면서 격렬 투쟁 결과 여천시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건설노동조합이 신고필증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에 들어갔으나 정족수 미달로 집행부가 1년 여 동안 인준을 받지 못하였다. 53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생계문제가 고통으로 뒤따라 결국 활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3) 활동 중단과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재건

1990년 4월 총회에서 이철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에서 차도행진을 빌미로 집행부 4명이 구속되었다. 이어 단체협상 요구를 하면서 위원장의 단식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무실을 삼동으로 옮기고 조직재건이나 일상 활동 강화를 위해 많은 시도를 했으나, 1993년 여름 노동조합 활동은 중단된다.

1995년 파업투쟁 중에 구속되었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호남정맥산악회'를 구성, 30여 명의 회원이 30회 이상 산행을 하면서, 1998년 12월 11일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 출범했다.

(4) 2002년 단체 협약 체결

2002년 4월 7일 정기총회에서 배관사 문선식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다시 석창 사거리로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단체협약 안을 승인 받는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참석하지 않아 협상자체가 무산되자 26개 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이어 6월 1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16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7월 13일 7차 협상장에 처음으로 12개 업체가 참석하였다. 협상의지가 없어 1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후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앞 도로, 공단입구 도로차단 등 각종 시위에 나서면서 8월 7일 교섭에서 52개 조항에 합의를 보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기·계전 업종까지 단협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파업은 더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수지역 50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로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여수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실한 교섭과 구속 조합원 석방을 촉구하였다.

9월 9일 흥국체육관에서 총회를 열어 단체협약을 통과 시키고, 현장을 복귀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노사는 11월 12일 단협과 함께 임금협약을 타결 지었다.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연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KTU로 약칭한다.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으로 발족한 뒤, 한국전쟁 후인

1954년 4월 대한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로, 1960년 11월 한국노총으로 각각 개칭하였다.

이듬해 5월 최고회의 포고에 따라 해산되었다가, 같은 해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산하 16개 산업별 노조와 1개 연합노조)을 결성해 오늘에 이른다.

여수에서는 1988년 3월 29일 기존 여수시지부에서 여천시가 여천지구협의회로 분리하고, 1989년 2월 22일 여천지역지부로 개편했다. 초대 의장으로 배용하를 선출, 1993년 4월 24일 선원동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했다.

삼려 통합에 따라 1998년 4월 28일 여수지역지부로 개편하고, 2000년 1월 1일 통합 제1대 의장으로 이장훈을 선출했다.

2) 목적

한국노총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비롯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임금·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 노사 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미 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대한 공헌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사업

노동관계법 제정·개정 입안, 국가 경제정책 연구·분석 및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정책 사업, 조직의 활동·관할권·결속·통일·확대, 교육정책 개발 및 세미나, 노사분규·단체교섭·단체행동, 신규조직사업 등과 관련된 조직 강화사업, 홍보·정치·국제·통일 대외협력 등과 관련된 대외협력 사업, 여성과 관련된 사업, 법률구조사업, 안전보건·산업재해보상·환경정책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사업, 기타 예산·결산, 특별회계, 장학사업 등이다.

4) 산하 회원 노동조합

	조 합 명	창립일	사무실 주소	전 화
항운 노련	여수종합항운	89.03.26	낙포 343	686-3943
	여수항운	61.11.13	수정 350-4	662-6921
	대한통운노조여수지부	61.09.19	수정 347	662-2660
해상 노련	여수해상산업	81.02.17	교동 682-1	663-7233
	여수수산업협동조합	90.01.23	봉산 100-7	641-2601
통신 노련	KT링크노조여수지부	87.03.10	문수 11	652-6119
	체신노조여수연합지부	87.03.10	관문 299-1	660-3112
화학 노련	네오텍	89.01.10	월내 1089	680-2738
	금호플리켄	90.03.10	월하 144-6	688-2895
	남해화학	77.10.13	낙포 343	688-5520
	대륙기업	88.05.16	낙포 343	688-5526
	리파즈석고보드시스템	98.12.14	낙포 197-20	685-2300
	예보닉카본블랙코리아여수	99.01.15	월내 350	690-5200
	월드켄	89.04.26	화치 356	688-3974
	금호미쓰이	96.04.19	화치 1292	688-5151
	금호석유화학	89.03.27	평여 287-1	688-3030
	창신화학	92.01.24	중흥 393-1	685-5582
	와이엔텍	97.06.11	월내 252	690-6947
	클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	99.02.09	월하 1-3	688-3319
	남우진흥	01.08.23	월하 565-1	683-1236
	휴켄스	02.09.18	월내 7-6	680-4550
	신정상운	94.04.27	월내 1056	685-7458
	동일통운	06.04.17	월내 288-1	686-8232
	(주)E노조여수지부	89.09.08	낙포 159-7	690-9352
	(주)KCC노조여수지부	87.08.07	낙포 880	680-7817
	한화노조여수공장지부	76.07.29	신월 805	640-1311
	택시 노련	서광교통	85.10.16	돌산 우두 1071-2
신광교통		95.01.15	둔덕 417	651-3182
신양교통		86.01.20	둔덕 417	651-3181
대성교통		88.07.26	소호 432-8	683-1678
대익교통		92.01.24	여천 928-12	685-8561
남진상사		96.12.26	만홍 1195-1	654-3125
전국택시노조호남교통분회		95.02.23	봉산 274-6	642-2544
전국택시노조한일교통분회		86.01.08	봉산 255-15	642-5155
전국택시노조진남교통분회		95.02.24	봉산 259-10	643-1510

택시노련	전국택시노조대광고통분회	91.03.20	주삼 157	691-6133
자동차 노련	광주전남자동차노조 동양교통지부	73.12.14	미평 606-6	662-3373
	광주전남자동차노조 오동운수지부	86.05.08	미평 606-6	652-5524
	광주전남자동차노조 여수여객지부	76.12.31	둔덕 571	651-4517
연합 노련	(유)여수보건공사	73.07.12	관문 586	663-0779
	여천보건위생공사	03.02.06	소리 봉두 836	685-6402
	그린여천환경	03.07.07	선원 55-10	683-0100
	마린글로리	03.02.14	낙포 160-3	686-5901
	여수지역일반	07.01.23	낙포 160-3	651-0300
	여수지역용접사	07.04.02	주삼 273-1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연혁

여수지역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7년 이후 여수국가산단 내 한국노총 사업장 일부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2000년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구조조정 저지, 금호P&B 구조조정 저지, 2001년 여천NCC, 2002년 여수건설노조 단협 쟁취, 발전노조 매각저지, 금호석유 정리해고 저지, 2004년 LG정유노조 투쟁 등이 잇따르면서 민주노총 지역 지부 조직 요구가 거셴다.

2003년 민주노총 여수시협의회(준) 구성하고, 준비위원장으로 천중근을 민주노총 전남동부협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했다. 2004년 민주노총 여수시협의회 30개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천중근 의장을 선출하고, 2006년 3월 35개 노동조합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준) 지부장 경선 박상일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2007년 3월 45개 노동조합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2기 지부장을 조합원 직선제 선거로 박상일이 당선되었다.

2) 목적

민주노총의 주요 활동은 임금인상 요구,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단

축, 경영참가, 고용안정, 해고자 복직, 부패추방,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단결권 및 쟁의권 확보, 기관지『노동과 세계』발간, 노사정위원회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사업

조직내부 역량강화 사업으로 작은 사업장, 여성사업장, 미조직 사업장과 건설, 특수고용직,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든다. 불법파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을 집중감시를 한다.

단위노조 간부 일상적 학습풍토 마련하여 지역의 정책역량 및 교육역량 확보, 지역 노동교육기관 “노동대학”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자 계급성 강화 및 조합원의 자주적 의식 함양과 투쟁문화 변신과 조합원 가족참여 일상 문화 활동을 기획 지원하는 노동자 문화센터를 만든다.

사회연대 사업으로 사안별 사회의제를 유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정책토론 및 대응력 확장하고, 지자체와 노동청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한다. 사회공공성 특위를 설치하고,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문제, 학교운영위원 활동 단협 보장, 대 교육청 교섭, 투쟁을 하며,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 및 시민대책위 구성,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

기타 사업으로 조합원 정치의식 고취와 대중적 자주·통일운동 전개, 여성 친화적 노조문화정착과 여성간부 발굴 육성 조직화한다. 여수국가산단 건강권 확보와 근·골격계 투쟁사업을 하고, 산업안전보건활동 비제조업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4) 산하 회원 노동조합

	조 합 명	창립일	사무실 주소	전 화
공공	한국발전노조호남화력지부	01.09.08	월내동 289	689-2208
	한국발전노조여수화력지부	00.09.08	중흥동 1300	680-4208
	사회보험노조여수지부	98.11.01	광무동 42-18	690-0600
	공항공사노조 여수지부		율촌면 신봉리 979	683-5406
건설	여수지역건설노조		화장동 876-2	652-3948
	호남전기원노조여수지부		미명동 584-1	685-0280
	덤프연대여수지회		화장동 876-2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학동 100번지	690-7117
민주택시	전국운수노조 여수삼성교통분회	85.09.14	봉산동 246-6	642-9735
	여수미항교통분회	85.08.05	둔덕동 552-8	652-9506
	여수일광교통분회	01.01.16	돌산읍 우두리 727-4	644-4900
	여수엑스포택시분회	99.06.21	학동 11-3	683-0286
	여수항우교통분회	85.09.23	만흥동 1143	651-9548
	여수화양택시분회	99.10.06	화양면 나진리 613	684-2311
	여수신안교통분회	87.03.05	광무동 909-4	641-4661
사무	농협노조여천분회		여수시 학동 42	683-5131
	농협노조율촌분회		율촌면 조화리 263-2	685-7041
	농협노조여수지회		군내리 341	644-1181
	축협노조 여수지부		학동 191-1	686-3900
언론	MBC노조여수지부	98.02.03	문수동 문화방송101-1	650-3380
전교조	전교조여수초등지회		중앙동 362-1	642-3686
	전교조여수중등지회		중앙동 362-1	642-3686
	전교조여수시립지회		중앙동 362-1	642-3686
운송	화물연대여수지회		주상동 547-3번지	685-7945
	여수·광양 예선지회		낙포동 355-38	686-7919
	동성향운 지회		수정동 343-10	662-1225
IT	한국통신여수지부		서교동 534-9	644-0500
	한국통신여천지부	82.01.05	학동 73	684-0500
화섬	열지화학여수나주노조	81.01.01	화치동 70-1	680-1008,9
	대림산업석유화학노조	97.10.29	화치동 48	688-6451,3
	열지석유화학노조	80.05.09	중흥동 754	689-3346
	금호파연비노조	92.01.24	화치동 319	688-3540,1
	대성산업가스노조	88.07.04	월하동 741	685-6055
	전국화학섬유노조여천NCC지회	00.03.02	중흥동 511-2	688-6045
	KROCC노조	00.02.03	중흥동 753-2	688-7634
	SY탱크터미널	00.02.26	낙포동 20	686-3678
	삼남석유화학노조	00.05.13	적량동 1155-19	688-8190
	한국바스프노조	90.03.27	화치동 373-15	680-7036,7
연맹	한화석유화학노조	97.07.21	평여동 287-9	688-1558,9
	폴리미래노조	87.07.23	화치동 48	688-6488
	한국화인케미칼노조	00.09.06	월하동 425	688-4997
	호성케멕스노조	82.09.16	화치동 1023	690-4692
	위스컴노조	01.08.23	중흥동 2-9	685-6532
	호남석유화학노조	01.10.05	중흥동 172	688-2030
	KPX 라이프사이언스지회	80.05.04	월하동 425	688-4901
	코오롱유화 여수지회	08.11.03	중흥동국가산업단지화장단지 8-28	

5. 미 가입 노동조합

	조 합 명	창립일	사무실 주소	전 화
미가입	GS칼텍스정유	71.03.17	월내동 1056	680-2690
	여순요식	87.12.09	군자동 169-1	662-7074
	우성산업	02.01.03	만홍동 1368-2	651-5811
	남운	02.11.28	주삼동 575-14	683-0691
	진남케이בל네트워크	02.03.21	학동 10-7	681-7001

6. 기타 노동운동 단체와 정치세력화

1) 방송인과 교사들의 노동조합 창립과 해직교사

6월 항쟁은 여수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역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7월·8월·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특히 기자와 방송인 등 언론인과 각종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신선한 충격을 준다.

공장 노동자 중심 노동운동에서 사무직 노동조합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의 노동자관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여수에서는 신선호, 박수석, 이청연, 오병종 등이 나서서 1988년 2월 1일 여수문화방송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공정 언론운동을 시작, 이후 사측의 탄압 속에서도 방송인의 장점을 살려서 지역의 여러 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교사들 역시 교육 민주화와 자주적인 민주적인 교사조직 결성을 추진, 1987년 8월 31일 전국 최초로 여수구봉중학교에서 평교사협의회를 창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26일 '여수·여천 교사협의회(회장 박종택)'를 조직했다.

이렇게 시작한 교육운동이 1988년 여천교사협의회(회장 한창진)로 분리되고, 학교와 급별 조직 확대를 거쳐 정부와 관계 당국의 탄압과 저지 속에서도 1989년 5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징계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도 6월 9일 여수중부교회에서 여수지회(회장 박종택)와 6월 12일 여천은성교회에서 여천지회(회장 한창진)가 창립되었다.

여러 학교에서도 분회를 창립하고, 조합원 명단도 7월 12일 한겨레신문에

공개되면서 가족과 학교 안팎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다.

그런가 하면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방북으로 인해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500명, 우리 지역에서는 43명의 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되었다.

1994년 복직될 때까지 많은 해직교사들은 교육운동 뿐만 아니라 지역운동 깊숙이 개입하면서 운동의 전국화와 다양한 지역적 요구의 분출 등 엄청난 운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2) 노동운동과 자주적 노동조합 결성

노동운동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때 여수 적색노동조합준비위원회 사건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기관지인 노동자, 적기 등의 인쇄물을 발행하여 노동자들의 교육·선전활동에 노력하면서 여수운수회사와 천일고무공장, 전기공장 노동자들과 철도 종업원 등을 조직하여 노동쟁의를 지도했다.

이후 부두노동조합 활동 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전무하였다가, 1986년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 노조 설립과 노조 사수투쟁을 한 것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1987년 전국적인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동양교통 노조의 어용노조 퇴진과 기본급 인상 등을 내걸고 파업을 하였고, 부두노동조합인 한진해운 노동조합의 파업이 잇달았다.

택시분실 소속 노동자들이 1988년 2월 2일부터 75일간 월급 27.4% 인상, 1일 2교대 실시, 타코메타와 시트 센서 철거 등을 내세우고 연대파업을 하였다.

1989년 1월 23일부터 53일간 여수에서는 최대 규모의 건설노동조합연대 총파업을 하였다. 여수국가산단 최초로 호남에틸렌노조(위원장 천중근)가 4월 14일 쟁의를 의결하고, 28일 타결 될 때까지 독립채산제와 하청직원 원청화, 임금인상 등을 내세우고 부분파업에 들어가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동투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도 강성 노동조합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또한 나성전자 위장폐업 철폐투쟁은 지역 최초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1989년은 중소 하청업체와 택시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조합 결성이 활발해진다. 이런 노동자들의 자주권 쟁취는 어용노조 해산과 상급노조 변경으로 이어져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투쟁부터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노조

들이 민주노총으로 가입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하면서 한국노총을 탈퇴했다.

노동조합위원장 가운데는 순천의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소장 허석)'와 연계되어서 노동법과 단체교섭, 경영성과분석 등의 학습과 지도를 받아 당선된다. 이 힘이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민주화학섬유연맹 여수산단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결성 등의 밑바탕이 되어, 2006년부터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여수지부(의장 박상일)로 독립했다.

이 과정에서 1991년부터 대립산업 현장 학습모임에서 활동하던 김성호, 김삼중, 정경오, 김선태 등이 1995년 삼려노동청년회(준)(회장 김형운)를 결성하여 '여천시민협'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지역의 주요 집회에 적극 개입했다. 현장 노동조합 지원과 학습모임 운영 등을 하면서 민주적인 현장지도부 구성에 고민을 했다.

1998년 공식조직인 전국석유화학노동조합 연합 여수지부 활동을 거쳐 노동운동 전문단체인 2001년 여수산단 노련(의장 박정식)으로 전환했다.

2004년 공동투쟁본부는 단체협상을 통해 지역발전기금 조성 and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 공공성을 협상조건으로 내걸고, 개별 노조로부터 협상을 위임받아서 공동투쟁을 하지만 성과가 없었다. 결국 GS칼텍스노동조합이 장기간 파업을 거쳐 복귀하는 과정에서 13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3) 힘들게 발을 내딛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제도권 정당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여수에서도 보수정당 탐바구니에서 1991년 1월 한국노동당 건설추진위원회 여수지부가 만들어지지만 흐지부지된다. 다시 1992년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여천지부(지부장 주중섭)를 결성하지만 정당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국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1992년 백기완 선거대책본부, 1997년 '국민승리 21'을 조직하여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다.

2000년 1월 민주노총 조합원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여수지구당(공동위원장 천중근, 김형운)을 창립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쌍봉동 시의원 후보, 2004년 총선 여수 갑에

이준상 국회의원 후보, 2006년 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3명, 2007년 총선 여수 을에 김형운이 국회의원에 입후보를 했으나 낙선한다. 그러나 2007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으로 나뉘어져 여수 갑에 김미경 국회의원 후보가 나선다.

2008년 10월 29일 여수 '바'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김상일 후보가 당선되어 제도권에 진출하게 되면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제3절 환경운동

1. 다양한 환경운동

1)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1995년 7월 23일 남면 소리도에 14만 톤급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좌초되어 병커C유 700 톤 이상을 유출한 사건에 지역의 단체들이 공동대응을 했다.

씨프린스호는 원유하역을 위해 호남정유 원유부두에 입항하였다가 태풍으로 인한 심한 파도 때문에 하역을 하지 못하고, 태풍을 피하기 위해 소리도 밖 해상으로 나가던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소리도에 충돌하여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다.

LG그룹은 사고수습에 있어서도 초기대응을 소홀히 했다. 사고발생 직후 보험처리 문제에 매달려 귀한 48시간을 허비하여 방제를 소홀히 하고, 방제역시 유화제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문제가 되었다.

1995년 7월 26일 사고를 접한 '환경을 지키는 여수시민모임'은 서울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사고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을 조사, 7월 29일에는 26개의 단체¹²⁾가 모여서 'LG그룹 소속 유조선 씨프린스호 여수·여천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시민대책본부, 공동본부장 신갑연, 고효주)'를 결성했다. 장도·송도 살리기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수산해양 관련 단체들이 결합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유화제로 인한 2차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 부각, 적극적이고

12) 바다살리기협의회, 환경을 지키는 시민모임, 여수 열린교회, 여수중부교회, 여수은현교회, 민애종여수지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한가리환경사랑방, 여수수협어촌계장협의회, 순천시어민후계자협의회, 여수시어민후계자협의회, 여천군어민후계자협의회, 갈수하식당식수협여수지소, 전남갈영식수협, 피조계양식수협여수지소,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여수지소, 제3,4구잠수기수협, 잠지양수협, BBS여수어천지부, 여수YMCA, 여수어천지역사회연구소, 함께하는 여성회, 서울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남해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환경연구소, 흥사단여수어천지부

체계적인 방제 수습 노력 촉구, 정부가 남해안을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하도록 요구했다. 8월 5일을 '시민자원방제의날'로 정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150 여명으로 시민방제단을 구성하지만, 호유해운 측에서 방해를 하여 둘산에서 방제 활동을 전개했다.

100일 정도 지난 11월 17일 호남사파이어호가 원유부두에 하역을 하면서 독성이 더 강한 원유 1,200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세 번째로 호유해운 소속 경해호가 기름 이적 작업 중 다시 원유를 유출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대책본부는 'LG제품 불매운동'과 '호남정유 기름 안 넣기 운동'을 폈다.

LG그룹은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시민의 분노와 불매운동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를 조직하여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8차에 걸친 조정회의에서는 환경영향 조사팀을 만들어 환경영향조사 등 환경복원에 관한 사업을 하기로 했다.

2) 여수국가산단과 환경운동

1967년 여천공업기지 기공 이후 여수국가산단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환경오염 사고 중 대형 사고는 1998년 8월 2일 제일모직 여수공장에서 스티렌모노머(SM)와 에틸벤젠(EB) 남수천 유출사고, 1998년 10월 2일 한화종합화학 가성소다 유출사고, 1999년 8월 6일 남해화학 석고장 침출수 사고 등이 있다.

안전사고는 2004년 말 기준으로 가스누출과 가스폭발, 화재사고 등 214건 발생하여 101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당했다. 그 중 대형 사고는 1972년 호남정유 방카C유 탱크 폭발사고로 9명의 인명피해를 시작으로 1981년 대림산업 보일러 폭발로 4명 사망, 1986년 럭키소재 무수황산탱크 폭발로 1명 사망, 276명 부상, 1989년 럭키화학 ABS공장 폭발로 16명 사망, 1994년 9월 8일 화인케미칼 분해탑 하부 배관 파열로 포스젠 가스누출로 3명 사망, 57명 부상, 2000년 8월 24일 호성케멕스 반응 분리기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로 6명 사망, 19명 부상, 2003년 10월 3일 호남석유화학 반응기 폭발사고로 1명 사망, 7명 부상, 2004년 8월 25일 LG석유화학 촉매 교체 작업 중 폭발로 1명 사망, 1명 부상 등이 있었다.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시설의 노후화와 정비 공사 소홀로 인해 갈수록 폭

발사고 규모와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3) 이목 핵발전소 반대운동

정부의 이목 원자력발전소 계획이 발표되면서 우리지역에서도 반 핵 활동이 있었다. 1989년 12월 1일 서한태 박사를 초청하여 상공회의소에서 '핵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수YMCA에서는 1991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목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반핵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0월 30일 '한국의 핵과 공해 상황' 이라는 주제로 공해추방운동연합 최 열 의장 초청강연회와 규탄 켈기대회를 열었다.

4) 바스프 확장 반대운동

여수국가산단이 생긴 이후 어떤 공장이 들어와도 그것은 지역과 무관한 정부와 기업의 일이었다. 지역마다 공장유치가 치열한 상황에서 1991년 지역에서 일어난 다국적기업 바스프사 입주 반대운동이 있었다.

그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실망감이 컸었다. 국세는 5조원이 넘으면서도 지방세는 기껏 300억 원에 지나지 않고, 늘어나는 공장 수에 비해 종업원은 12,000명 수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하청이나 납품, 용역, 운송 등 연관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업체조차 없고, 수익성이 높은 것은 외지 업체나 친인척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지역 업체도 저가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94년 화인케미칼 포스젠 가스누출로 3명 사망, 57명 부상을 기억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바스프가 확장단지에 그 포스젠 가스가 발생하는 TDI 공장을 확장한다는 사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러한 독가스 공장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제공과 세금감면을 지원받는 외자유치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반발을 하고 지역의 25개 단체들이 모여서 '바스프 독가스 공장유치 반대 범시민위원회(상임대표 김충석)'¹³⁾를 조직, 이후 거리 시위와 토론회, 독일 본사 항의 방문들을 하면서 무

13) 여수수산인협회, 월남전참전전우회, 전교조노동/시립/중등지회, 여수YMCA, 민주노동당여수시지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재향군인회, 여수YWCA, 온천교회, 여수대학교총학생회, 여수공대총학생회,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수시향년회, 대한어머니회, 세시대공단연합, 여수대학교총동아리연합회, 여수대학교총여학생협의회, 그린해럴리아수지부

분별한 석유화학공장 확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처음부터 계획된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아니라 점차 확장되는 형태로 조성되어서 배관 관로와 장치들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어서 연쇄 폭발위험이 있어 화약고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특히 포스젠 가스와 같은 치명적인 가스가 많아서 누출과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스프사는 친환경과 안전한 시공, 이를 감시할 환경안전심의회 조직을 약속한다. 또, 인재육성기금 기탁과 직원 채용 시 지역 사람 우선채용, 지역 업체 공사참여 등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했다.

이후 기존의 입주업체는 시설확장과 증설을 하면서, 신규업체는 입주할 때 지역의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5) 산단 제도 개혁운동

바스프 반대운동은 우리지역 시민운동 방식의 일대 전환점으로, 환경운동 단체들이 초기에는 항의와 시위, 농성중심에서 사고발생 회사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했다.

이것이 모두 정부의 산단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판단 아래 전국의 산단 주변 환경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응을 제안, 2002년 2월 25일 여수노블레스호텔에서 '국가산단 제도·환경개선 전국 워크숍'을 개최하고, 울산에서 국가산단 주변 도시들의 환경,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국가산단 개혁연대'를 조직했다.

그리고 국가산단 주변 도시를 순회하면서 워크숍과 행사를 하고, 국회의 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주요 환경운동 단체

1) 여수환경운동본부

여수환경운동본부는 1996년 5월 20일 여천시 신기동 137-1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신장호를 선출한다. 여천시의 KIST 조사결과 은

폐의 부당성을 성토했고,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여천공단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종합이주대책 촉구 성명을 발표, 7월 15일 23개 사회단체 참여 속에 여천환경문제 여수·여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7일 흥국체육관 앞 공터에서 10만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를 추진했다.

영산강환경관리청 순천출장소를 여천공단내로 이전되도록 요구하고, 10월 4일 화양면 나진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목 핵발전소 건설 반대투쟁 총궐기대회를 주관하고, 핵발전소 조사단을 원천 봉쇄했다.

1997년 주거환경개선 차원이 아닌 공공용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환경개선 부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이주대책 촉구 건의서를 제출했다.

2)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992년 11월 28일 창립한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모태가 되었다. 그 때 활동했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준비모임에 참여, 1996년 여천공단 환경문제 대책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던 중앙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지역조직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준비를 했다.

지역조직은 사무실 15평 이상, 회원 150명 이상 등 기준이 있어서 회원모집을 열심히 하여 10월 10일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삼려 시장, 군수, 시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12월 17일 창립행사를 열었다.

1997년부터 생태기행과 시민환경교실을 근간으로 중점사업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화양면 이목 핵발전소 후보지 지정 철회운동, 1998년 쓰레기 문제 해결 시민운동과 연등천 복개 반대운동, 1999년 아름다운여수21 협의회와 한화석유화학 가성소다와 남해화학 침출수 유출사고 대책 마련, 2000년 겨울철새 월동지 조사 활동과 광양만 환경 감시 활동, 2001년 바스프 독가스공장 반대운동과 독일 본사 항의 방문, 주말농장 푸르미 개장, 2002년 산업단지 환경 및 제도개혁을 위한 전국연대 창립, 2004 여수시 에너지기본조례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 2005년 여수시민 해양환경보전의날 선언과 여수생태산단 선정 지원사업, 2006년 연등천 살리기 시민운동과 수문산 보전녹지 지키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2002년 일본 노모아 미나마타 국제환경상을 외국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상하고 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3) 기타 환경 단체

최채곤, 한창진, 문태석, 박계성, 김현수, 김정일 등이 1992년 11월 28일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공동의장 정한수, 박종언)을 창립, 처음에는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 문제 등 실천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점차 공해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다. 또한 1993년 전교조 교사들이 환경교사모임(회장 한창진)을 만든다.

화양면 이목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1996년 KIST에서 '여수산단'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판정하면서 더욱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단체가 늘어났다. 여천환경운동본부(이사장 신장호)가 먼저 창립되고, 환경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전국적인 조직인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정명 목사, 진옥 스님)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린웨이리 여수지부(지부장 박종언) 등 환경단체들이 창립하면서 늦었지만 석유화학산단 주변 도시로서 환경오염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와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수는 바다를 끼고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어 환경 관련 단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여수국가산단 내에 있으면서 공해 감시를 하는 공해추방운동본부(회장 박동현)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여수의 주요 환경운동 단체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업무
(사)자연사랑환경보전협의회	여서동 208-4		자연보호 운동
공해추방운동본부여수지회	중흥동 477-9	1994. 2. 3	공해추방과 자연환경보존운동 전개
그린웨이리운동연합 여수지부	광무동 247-6	1994. 10. 15	환경오염실태조사와 교육실시, 자연보호 및 자연환경보전활동
(사)한국한려수도연구회	오림동 482-1		환경보존과 수산자원 조성
수중생태계탐사연구협의회	여서동 금호리 0605		바다청소 등

수질보호환경운동회여수지회	봉산동 253-10		바다청소, 하천저수지청소, 등물역이주기
이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돌산읍 강남로 56	1998. 12. 18	지방의제21 실천사항 추진
여수환경운동본부	선원동 1269-8 2층	1996.	환경보전 및 교육홍보 활동
여수환경운동연합	신기동20-92층	1996. 12.	환경감시활동, 환경정화사업
자연보호여수시협의회	여서동 현대 113/701	1986.	청결운동, 자연보호운동 실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여수지부	여서동 222		해양환경오염 방제, 바다 환경운동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여수지회	신기동 111-8		환경교육, 감시, 홍보, 계몽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호남본부	미평동 274-3		환경감시활동, 환경정화사업
(사)환경21연대 전남본부	학동 31-4	2001. 3	생태계보전, 자연보호

제4절 NGO 활동

1. NGO, NPO의 정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다층적 세력들이 갈등하고 협력하는 다원적·복합적 영역으로 다양한 결사체가 자율·참여·연대라는 이념 아래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집합적 여론을 형성한다.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단체는 그 범위가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와 조직원리,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와 협력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공공 정책적 측면,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일상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 운동적 측면, 국제정치

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국가이기주의를 견제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기구론적 측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NPO(Non-for-Profit-Organization), 제3섹터(the third sector),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 민중단체, 관변단체, 이익집단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

NPO(비영리민간단체)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자체 관리 절차에 따라 공공목적에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놓여있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자체 관리 절차를 지니고,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NGO(Non-Governmental-Organization)는 UN에서 국가기구와 관계를 맺고 협의하는 조직, 곧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조직을 의미한다. 즉, NGO는 비정부성, 공익성, 연대성, 자원성, 공식성, 국제성을 특성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NGO를 시민단체와 똑같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민단체는 직능단체와 달리 회원가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목적과 운영 원칙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에서 각종 연대 활동

1) 여수·여천 사회운동 협의회(여사협) 탄생

6월 항쟁은 여순사건 이후 지나치게 숨을 죽이던 지역을 역동적인 분위기로 확 바꾸게 만든다. 1987년 11월 14일 문익환 목사 초청강연회를 통해 군정 종식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국본을 중심으로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했다.

야권분열로 야당이 집권 실패를 하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열기와 잇따른 방북으로 조성된 공안정국 등으로 지역운동도 약간 주춤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여수민주주의청년회'가 주관해서 민주시민학교를 공화동 은현교회에서 개최, 사회운동가 장기표 선생, 농민운동가 나상기

선생, 민중 경제학자 박현채 교수, 민청련 민중민주연구소장 채만수 선생 등 사회운동의 권위자 초청강연을 통해 사회의식 확산과 이론적 토대를 다지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여수YMCA가 중심이 되어서 1989년 전교조 탄압저지와 해직교사복직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고, 서명운동과 집회를 열었다. 공대위 경험을 통해 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990년 1월 11일 여수YMCA에서 여수·여천 지역 민주단체 대표자 신년 교례회를 연다. 그 이후 이 모임을 단체를 돌아가면서 대표자와 실무자 간담회를 하고 '여수·여천민주주의 사회운동단체협의회(여사협)' 창립을 준비했다.

드디어 1991년 3월 25일 은현교회에서 '여사협' 창립대회와 이문옥 감사관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여사협에는 민주주의청년회, 민주노동자연합, 전교조여수지회, 전교조여천지회, 여수수대총학, 여수YMCA가 참여한다. 임명흡 여수중부교회 목사, 김정명 여수YMCA 이사장, 심경섭 전교조 지회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2) 이충무공 유적 장도·송도 보존 대책회의

1994년 울촌산단 장도와 송도 살리기 운동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봉사 단체가 모여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전에는 주로 여사협과 같은 사회운동 단체 간의 연대를 도모하였다.

울촌산단은 전라남도가 1992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1994년 현대자동차와 대형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공장 입주의 꿈을 안고 단지조성 공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울촌 산단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과 최후 격전을 벌인 곳이다.

왜군이 지키던 순천시 해룡면 왜교성과 조선수군과 명나라수군이 진을 쳤던 장도(노루섬)와 송도(솔섬) 사이 바다에서 치열하게 교전을 한 역사유적이다. 그런데 산단 개발계획은 왜교성과 장도 사이를 매립하고, 토석채취를 위해 장도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순천 동부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학영)가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 이학영 소장이 여수YMCA 총무로 취임하면서 여수지역 38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이충무공유적 장도송도보존대책회의' 14)를 구성했다.

장도와 송도 살리기 시민 서명운동과 관계기관 청원서 제출, 시민홍보 등

14) 여수·여천YMCA, 여수 문화원, 환경을지키는시민모임, 여수르타클럽, 황계하는여성회,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향교, 여수유도회, 여흥여수지부, (사)친남재전보존회, 각수영성역회사업추진위원회, 이충무공유적영구보존회, 자북선연구소, 고선박연구소, 한겨레신문여수지사, 민예총여수지부, 은현교회, 열린교회, 바다살리기협의회, 여수여천택시노련, 지방자치광광후, 여수여천지역사회연구소, 전교조여수지회, 전교조여천지회, BBS여수여천지부, 여수YWCA, 이광호, 고법석, 이종근, 이희승, 이공원

의 사업을 했다. 여수MBC와 무등일보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서울 KBS가 특별취재를 하여 운동이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라남도는 대책위에 장도 전체 12만 평 중 1만 5천 평 정도를 남겨 임진왜란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제의를 하는 선에서 공사를 추진했다.

3) 삼려통합의 밑바탕이 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1949년 여수군의 여수읍이 여수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여천군이 되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공단지원을 위해서 1976년 생긴 전라남도 여천출장소가 1986년 여천시로 승격하면서 여수는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삼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는 지형적으로나 역사적, 생활면에서 통합될 수밖에 없었다.

1994년과 1995년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온갖 우여곡절 끝에 무려 3차례나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정부 주도의 통합이 끝났으나 시민단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통합운동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결과 1997년 9월 9일 역사적인 주민투표법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삼려 통합을 이루어냈다.

이것은 주민발의에 의한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것을 이뤄낸 시민들은 위대한 시민정신 발휘라는 점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여수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활동이 성숙하게 되었다.

통합운동은 종전에 반대가 심했던 여천지역 인사와 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통합운동을 이끌어간 축은 크게 '삼려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와 '삼려 통합을 위한 여수·여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¹⁵⁾, '국민회의 여수지구당과 여천시·군 지구당' 이렇게 세 축이었다.

삼려 통합이 민간주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1995년과 달리 통합에 따라 조정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안감이 통합에 소극적이게 만들어 결국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여천시 쪽에서 여수시에서의 흡수통합이라는 자존심과 관계되는 것이어서 여수시 쪽은 조용했고, 주로 여천시·군에서 크게 부각을 시켜, 쟁점이 되게

15) 여천시민연, 새시대공민연합, YMCA, YWCA, 한국노총여천지부, 한국노총전남노동사무소, 여천환경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함께하는여성회, 여수시의회의원동우회, 여천지역발전협의회,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전교조여수지회, 전교조여천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회복동지회, 여수기독교실업인회, 수도권노동동우회, 여운회, 대한어머니회여천시지회, 한국부인회여수지회, 여수시재향군인회, 민족통일여수시협의회, 여수반도시민재단, 여천시자원봉사지회, BBS여수여천지부

하여 여론화에 성공했다. 유림,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수산업자, 봉사단체, 문화 예술인, 체육인, 재경 여수향우회 등 국내외 출향 인사들이 나서 연일 지지성명을 내고 통합에 적극 나섰다.

4)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연대 활동

여수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오던 YMCA와 여천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1997년 '삼려 통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조직하고, 통합운동에 적극 나섰다.

통합 이후에도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8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창진)'를 결성했다.

연대회의가 갖는 의미는 삼려 통합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끼리 연대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여수YMCA는 청소년 육성과 사회교육활동, 여수YWCA는 여성문화 활동, 전교조는 교육 운동,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 여수시민협은 시정과 의정 참여와 감시활동, 여수사랑청년회는 청년운동, 새시대공단연합은 여수산단 종업원들의 문화육성과 지역사회 참여운동,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 교육 운동, 함께하는 여성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협력단체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과 향토문화 연구 활동, 뒤에 참여한 여산노련은 노동운동, 이와 같이 분야별로 전문활동 영역을 정하여 고유사업을 펼쳤다.

사안에 따라 연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지역연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대회의가 지금까지 해온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삼려 통합 기념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의제 사업인 '아름 21' 조직,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현, 시의회 의장단 선거 뇌물사건 천막농성, 낙천낙선 총선운동, 고교평준화, 대통령 탄핵반대, 시티파크 골프장 반대, 한미 FTA반대 등이 있다.

5) 진보 연대의 창립

준비단계를 거쳐 2006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교조여수지회, 민예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한농연, GS칼텍스해복투 등이 모여 진보연대를

창립했다.

통일운동, 미국 쌀 수입반대와 한미 FTA 저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로서 버거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6) 국제봉사단체 여수지역협의회 결성

전남에서 최초로 여수지역에 1966년 첫 봉사단체가 탄생하여 국제 4대 봉사단체인 로타리 15개, 라이온스 24개, 와이즈멘즈 11개 클럽, 청년회의소 2개 등 총 52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봉사단체의 메카로 많은 지도자 배출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삼려 통합운동 때는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통합을 이뤄냈고, 비록 실패하였지만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201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2012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2004년 7월 24일 로타리 전 총재인 이의근과 김종익이 만나 여수가 최악의 경제 사태인 LG정유 파업을 맞아 국제봉사단체가 나서서 여수 이미지를 살리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고, 8월 2일 국제봉사단체여수지역협의회(초대회장 김우현)를 조직했다. 3일 LG정유 노동조합 파업사태를 맞아 강경 일변도의 노사분규와 파업 즉각 종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300여 명이 가두시위를 하였다.

삼려통합 등 지역 현안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봉사단체들이 여수국가산단 노사분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는 것이 향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 분야별 단체

1) 교육 단체

(1) 참교육학부모회

우리 지역에는 YWCA를 비롯하여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근우회 등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자녀교육과 생활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단체들이 생겼다.

전교조 여천지회 열린교실에 참여하고 있던 김 향, 이숙애, 박복희, 조정란, 신용자 등이 1993년 9월 22일 '여천참교육학부모회(회장 신용자)'를 창립, 자녀교육문제 해결과 학부모 손지와 학교비리 해결, 학부모의 자주적 학교운영 참여, 지역교육 활성화 등에 학부모의 목소리를 냈다.

1994년 '여수참교육학부모회(회장 허성자)'가 창립을 하고, 삼려 통합 이후 통합 여수참교육학부모회를 조직 하였으나 활동이 흐지부지되었다.

(2) 새교육공동체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민간주도의 교육 시민운동 차원에서 '새교육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수에서도 검토를 시작하였다. 7월 8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여수시내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9월 3일 새교육공동체¹⁶⁾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9월 22일 창립(상임대표 서완석), 첫 행사로 11월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교육개혁과 학부모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고교평준화를 지역 교육현안으로 공론화를 시도했다. 학교운영위원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주도의 학교와 교육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새교육공동체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바로 고교평준화 운동을 들 수 있다. 2002년 10월 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고교평준화 추진 설명회에 참석하고, 10월 17일 인재육성고교평준화시민연대 창립을 주도하였다.

고교평준화는 2003년 1월 8일 꺄럽 주최 여수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고교 입시제도 개선 토론회를 거쳐, 2003년 1월 여수, 순천, 목포 각 지역별로 1,000명의 학부모와 학생,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여수 68.1%, 순천 77.3%, 목포가 71.3%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장환 교육감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전 여론조사 결과 2/3이상의 찬성이 나올 경우 고교 평준화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순천, 목포 지역 고교평준화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16) 1998년 5월4일 교육부에서 현직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새교육공동체 추진자문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민간주도의 시민운동을 유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 1998년 6월24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5,815호로 공포.

(3) 어린이도서연구회

1997년 10월 (사)어린이도서연구회에 '여수동화읽는어른모임'으로 등록된 여수지회(회장 위창희)는 여수지역 어린이 도서문화를 살리기 위해 회원들이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모여 매주 1회 창작동화, 옛이야기, 그림책 외 여러 책들을 읽고 토론하며 어린이 독서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역 초등학교 교실을 비롯해서 현암도서관, 복지관, 삼해원,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수지역 교육 관련 시민운동 단체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화
(사)한국교육심학회여수지회	소호동 114		인성및예절교육상담등	686-7116
교육운동주방을위한학부모협의회	선원동 1256 시상가 3층	1997.	교육상담운영, 교육비리척결운동	686-3399 681-3999
세계특수총회호남지부	연동동 5		장애인 특수교육, 문고복지사업	662-7684
여수새교육공동체	광무동 916-12	1998.9.	시민참여 교육개혁, 지역사회 교육민주화 운동, 공교육과 사교육 균형 발전	011-623-7460
여수시민재단	관문동 451-1	1996.	지역 청소년 장학회 운영, 학술연구	666-3900
전교조여수지회	봉산동 279-3		참교육실천 민족민주인간화교육실시	642-3686
여수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동 69-5	1999.	지역사회발전, 교육발전운동, 지역 사회계도, 학교교육협조	681-6214

2) 청소년 단체

여수지역 시민·청소년 관련 시민운동 단체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화
여수YMCA	광무동 916-12	1946.9.25.	사회교육, 시민운동, 청소년운동, 소 비자운동, 환경운동	642-0001
여수YWCA	여서동 226	1982.5.26.	여성, 청소년보호육성및 복지증진환경보호	654-2161
(사)어린이도서관구회	선원동 1226-4		책읽어주기, 공부방운영, 책보내주기	681-2913
(사)한국BBS여수지회	돌산읍근대리 363-1	1990.	비행청소년선도, 불우청소년 가정돕기	
4H여수시연합회	주상동812-2 농업기술센터	1955.	청소년농촌기술보급 농촌후계세대양성	690-2712
여수컬스카우트협회	여서동 224-9		회원 관리 및 권익향상	
여수청소년연맹연합회	문수동 182	1983.	청소년 수련 활동 지도 및 학교 폭력 추방 운동	650-6270
전남야학연합회	소리면대포리 1539-1		도내검정고시반운영지역아동센터 및 비정규활정화	686-9009
한국청소년육성회여수지구회	종화동 582		청소년 선도 활동 등	681-0070
한국해양소년단전남동부연맹	봉산동 100-9	1986.	청소년봉사활동실시, 해양환경지킴이활동	641-0591

3) 청년·노인 단체

(1) JCI

청년회의소는 20세에서 45세까지의 청·장년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한국에서는 한국청년회의소, 약칭은 한국JCI이다. 1972년 국제 JC(Jaycees International)로 바뀌었으며, 1988년 국제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nl)로 다시 이름을 바꿔 지금에 이른다.

국제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 개발, 지도자 훈련을 통한 개인능력 개발, 세계와의 우정 등 3가지를 3대 이념으로 삼고 있다.

① 여수JCI

여수에서는 광주 JCI회원의 권유와 진주 JC 창립 멤버의 교량 역할로 광주 JC 스폰서로 한국JC 29번째 로컬로 태동되었다. 최갑식, 임영기, 황종연, 이행묵, 박기수, 박종대 등이 주축이 되어 청년 상공인 21명이 창립 멤버로 1968년 3월 25일 창립 총회(초대 회장 최갑식)를 가졌다.

창립하던 해 시가지 휴지통 설치와 불우이웃돕기운동 전개를 시작으로 많은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하였다.

창립될 때는 문화원에 사무국을 두었다. 이후 상공회의소 등 여러 곳으로 이전, 1997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평동에 자체 회관을 준공하고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② 여천JCI

여천청년회의소는 1989년 11월 16일 창립, 그해 12월 15일 (사)한국청년회의소로부터 348번째 로컬로 인준을 받았다. 박병열 초대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회원들로 출범한 여천 JC는 1990년 경남 장승포 JC, 1994년 대만 후리 JC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1998년 삼려 통합이 되면서 여천군 지역에서 창립된 서여천 JC와 통합하였다.

(2) 청년단체

우리나라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청년 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운동이 미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 전후에 시작한 민주주의청년회(민청)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속으로 오랫동안 지역운동을 담당해 왔다.

1990년 초 여천시지역에는 여천시 출신 최철훈, 서선택, 김인식, 김규중, 김동근 등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여서 '애향회'를 만들었다. 1990년대 중반부

터 급격하게 지역의 학생 청년 운동의 중심이었던 여수대학교 학생운동과 YMCA 청년조직이 약화되면서 여수대학교 출신 강홍순, 정병필 등과 YMCA 풍물패 등 청년클럽 활동을 하던 김창배, 김인택 등이 새로운 청년조직을 준비했다.

이렇게 2000년에 창립한 '여수사랑청년회'는 전국 청년조직과 연대하여 각종 민족통일사업과 사회참여 활동, 지역민의 권익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특히 여수지역 통일연대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에서는 연대회의, 진보연대에 함께 가입해서 전국적인 사회운동을 제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하는 사회운동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3) 여수대 학생운동

여수 유일의 4년제 대학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1917년 공립 간이수산학교로 시작, 1993년 여수수산대학교, 1998년 여수대학교로 교명 변경, 2006년 전남대학교와 통합했다.

학생운동의 시작은 1983년 예비역 해군 준장 출신인 홍순성 학장이 취임하면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 민주화에 따라 학원 민주화가 촉발되면서이다. 1987년 11월 23일 3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민족민주 여수수산대학 건설 준비위원회를 발족, 학장과 어용교수 퇴진, 평교수 평의회 구성 촉구를 내걸었다. 해양토목학과 학생들이 자질 있는 교수 초빙 등을 내세워 수업을 거부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학장실 점거 등으로 확산되었다. 다른 대학과 같이 가두진출을 하고, 이에 맞서서 경찰 최루탄이 터지고, 투석전이 여수에서도 벌어졌다.

1988년 여순지구와 전남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전국적인 학생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5월 24일 총서클연합회 주최 군부 무능 학장 퇴진 및 학원민주화 쟁취 집회를 갖고, 또다시 학장실 점거가 반복, 실험실습비 공개를 요구하면서 서무과, 교무과 점거 농성 등 1년 여 동안 학사가 마비되고, 교수들의 학생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교수들이 나서서 학장 퇴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께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12월 2일 최초 직선 학장으로 제2대 학장인 강성구 교수가 취임했다. 그렇지만 경영학과 학생들의 어용 교수, 김한중 교수 퇴진 운동은 130일 동안 계속된다. 급기야 경영과 교수 사퇴 건의서 제출에 따라 학장이 나서서

증정계를 요청하여 9월 18일 해임되면서 마무리 되었다.

여수대학은 2대와 3대에 걸쳐 운동권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면서 학생 시위가 많아졌다. 1989년 4월 13일 민주광장에서 대학이전 쟁취 및 문익환 목사 방북 귀국 환영대회가 열리면서 전경과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1990년 5월 9일 민자당 창당 전당대회 결사저지를 위한 청경 학우 총궐기 대회를 하면서 총학생회장 여종태(식공4)와 김종호(경영4), 강홍순, 정희정, 유상혁, 이인엽 등이 연행 구속된다.

4대총학생회장이 비운동권이 당선되면서 동아리연합이 중심이 되어 지역 시민사회, 노동자 단체와 연대해서 각종 시위와 집회 대오를 갖춘다. 1991년 4월 29일 동아리연합회장 김대용을 불법연행 구속하면서 광주은행 국동지점까지 가두 진출하는 시위가 이어진다.

1996년 4·19 혁명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국동 캠퍼스로 돌아온 오영권 학생이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완수 유필을 남기고 신나를 뿌리고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일 가두 투쟁과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해왔던 학생회 출신들이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상근 활동가로 참여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다. 또, 역사연구회, 노래패 까치울음, 탈패 등은 지금까지 진보적인 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출신들이 지역 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 노인 단체

단 체 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 화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국동687-1 (동여수복지회관내)	1998.8.28.	노인복지증진노인지위향상및 여절교육청소년선도활동	643-4702
신명노인대학	문수동 826		노인대학 운영	652-3348

4. 보훈·안보 관련 단체

1) 보훈 단체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화
대한민국유공수훈자회여수지회	혁동 33	1992	국가유공수훈자관리·회원의자활정책 을위한사업	690-8296
대한민국상이군경여수지회	연등동 731-15	1963	국가유공자위상과예우 복귀 등 국가 보훈제도홍보	641-6541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여수지회	연등동 731-15	1963	국가유공자위상과예우복귀등 국가보 훈제도홍보	641-6541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여수지회	연등동 731-15	1963	국가유공자위상과예우복귀등 국가보훈제도홍보	663-7127 641-6541

2) 안보 단체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화	
(사)6.25참전경찰유공지회	고소동343 (경찰서내)		참전전우복지증진 및 상호친목·조국평화통 일과자유수호운동	662-4193	
(사)6.25참전유공자여수지회	여서동 220-5		6.25전쟁의역사적교훈연구기념 안보의식고취	651-5884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여수지회	교동611-6	1997.12.10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정한전우들기운동	692-5125	
대한민국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여수지회	교동 522		정한전우들기운동,신불감시,환경운동 등	666-2089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여수지회	고소동343 (경찰서내)		조국평화통일과자유수호에 기여	662-4193	
안보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여수지회	덕충동 177-7	2000.	회원간친목도모	
안보	여수특전동지회	신기동 9-14	1983.	회원상호간 친목도모	685-8484
안보	재향군인회 여수지회	여서동 220-5	1961.12.28.	비다수중 정화활동	651-5882
안보	해방대전우회전남연합회여수지회	혁동 79	1966.	병병조직활동, 정한전우들기운동, 안보교육 지을병법활동실시(회원폭력 및 성폭력추방	682-0118

5. 보건 의료 · 복지 관련 단체

1) 보건 의료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화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광주전남지회	과동 39-1 13층		에이즈 퇴치 사업 등	662-6114
대한약사회 여수시약사회	여서동 478 동래약국	1966.	시민보건복지향상	652-8520
대한약사회 여수시의사회	학동 67-8 (해재영정형외과)	1974.	시민보건복지향상	685-7575
대한치과의사회여수시치과의사회	학동 5-1	1980.	시민보건복지향상, 영세민 무료 틀니 사업, 건강치아 선별대회	684-0543
여수한의사회	여서동 239 (고려한의원)		시민보건복지향상	651-0588

2) 복지

(1)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수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 공동체 구현,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여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05년 6월 1일 여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9월 8일 제1기 대표 협의체, 10월 12일 제1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지원과 운용 계획 심의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2) 여수일과복지연대

민간차원의 실업, 빈곤 타파,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20 여개 시민, 종교, 노동,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1999년 4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이사장 허성자)를 결성, 맨 처음에는 무료 일자리 알선 센터

를 운영했다. 생계비 지원사업, 실직 상조회, 방과후 무료공부방 운영, 2000년 6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2001년 7월 보건복지부 여수시민자활후견기관 지정 운영,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 1월 법인 명칭을 '사단법인 여수일과복지연대'로 변경했다. 고용 인적 자원 개발 사업 수행, 평생교육 시설 운영, 전직 지원 프로그램 사업 수행,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사업, 멘토와 함께 하는 직업탐색 및 인성교육, 맑은 여수 환경,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여수지역 복지 관련 사회운동 단체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화
(사)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고소동 636-4	2001.7.1.	취업알선, 교육, 상담, 생계지원 등	663-8377
(사)장애인정보협회여수지회	봉산동 279-3		컴퓨터 무료교육 등	642-8966
(사)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여수지회	학동동 761-3		장애인의권익보장 장애인의재활지원 기반도모	691-4449
(사)한국농아인협회여수시지부	충무동 624-9 동아빌딩 3층	1980.4.10.	농아인 능력개발사업, 농아인 권익 옹 호를 위한 사업	666-6747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여수시지회	고소동 637 KT동여수지점 3층		고령자 컴퓨터 무료 교육	664-989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여수지회	여서동 97-2		시각장애인점자교육,인미교육 및보행훈련,복리후생사업	653-7768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여수시지회	미령동 183-1	1992.4.6.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재활 및 자립 도모	652-5841

6. 봉사 단체

1) 로타리

1905년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변호사 폴 헤리스에 의해 회원 간의 직장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져서 '로타리'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우리나라는 1927년 국제클럽에 가입을 했고, 여수에서는 1966년 1월 당시 여수공보원장(여수문화원장) 박봉양이 광주미공보원장 오향으로부터 로타리 클럽에 대한 취지를 듣고 감명을 받아 여수신문기자단장 김성환과 전남미유 여수지점장 기창섭 등 3인이 뜻을 같이 하여 7월 6일 회원 26명이 모여 여수 클럽을 만들었다. 현재는 15개 클럽으로 늘어났다.

국제로타리 3610지구 총재를 지낸 인사로는 주종석, 이익근, 김우현, 이세준, 김종익 등이다.

여수지역 로타리클럽

클럽명	창립일	초대 회장	클럽명	창립일	초대 회장
여수	1966.7.6.	김성환	여수한울	1997.9.26	최미정
여수좌수영	1976.7.5.	장봉균	여수신단	2001.6.15	조동호
여수구봉	1979.5.15.	이형출	여수21세기	2004.3.20	최병운
여수한려	1986.10.17	조남선	여수상록수	2006.7.15	박영복
여수진남	1993.12.10	김용권	여수해오름	2006.11.20	이성순
여천	1989.2.22	김용희	여수거북선	2007.2.1	이용석
여천어울	1993.10.16	김희자	여수홍국	2007.4.12	주재선
여수중앙	1995.12.5	김도이			

2) 라이온즈

1917년 6월 7일 미국 아리조나주 포트 토마스시의 멜빈 존스에 의해 창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미국인 무역업자인 오키프가 처음 국제라이온스클럽의 취지를 한국 친지들에게 알리고,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1959년 2월 12일 미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신동욱이 국제라이온스 본부에 들렀다가 감명을 받아, 이대위, 여운형, 정준, 정항범 등 뜻을 모은 19명이 반도 호텔에서 조직 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전예용을 선출하였다.

여수에서는 1967년 5월 30일 회원 22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져 이상택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 지구 총재를 지낸 인사로는 황호채, 김현보, 민병태, 양동일 등이다.

여수지역 라이온스클럽

클럽명	창립일	초대 회장	클럽명	창립일	초대 회장
여수	1967.05.30	이상택	총무	1981.01.06	우천수
진남	1974.04.04	김홍식	남도	1981.02.17	김일선
새여수	1976.11.26	백종문	동백	1981.03.16	추상은
종고	1978.06.11	안문성	앵무	1984.12.27	김운택
화양	1978.12.02	윤병호	새여천	1986.02.17	이준호
돌산	1979.02.14	김두호	여성	1988.11.14	정금희
구봉	1979.10.19	여정길	청솔	1991.04.12	최동훈
자산	1979.11.21	서양수	좌수영	1994.03.17	조영식
중앙	1979.11.21	이원희	녹색	1995.11.13	성해석
여천	1979.12.21	주인철	환경	1996.03.11	김영채
흥국	1980.03.27	배주환	미향	1999.01.09	김순자
한려	1980.11.24	양해창	청년	2000.03.10	문창순
큰샘	1980.12.22	김채옥			

3) 와이즈멘즈

1922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토에서 클럽이 조직되어, 동년 5월 오하이오주 내 7개 클럽이 회동하여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동년 11월에 개최된 YMCA 세계대회에 미국과 캐나다의 17개 클럽 중 13개 클럽이 모여 국제 클럽을 출범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29년 경성 YMCA 내에 일본인 경성클럽이 차아터를 받았으나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1946년 부산클럽이 차아터를 받은 것이 처음이다. 1953년 9월 서울클럽이 재조직되었고, 1959년 3월 5일 한국지구 와이즈멘즈클럽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여수는 1968년 5월 4일 회원 18명이 모여 창립하였고, 초대회장으로는 윤기철이 선출되었다.

국제와이즈멘 한국 남부지구 총재를 지낸 지역 인사로는 1991년 여수클럽 양효진, 1996년 여수클럽 윤채주, 2003년 진남클럽 김효현, 2006년 한려클럽 문상봉 등이다.

여수지역 와이즈멘즈 클럽

클럽명	창립일	초대 회장	클럽명	창립일	초대 회장
여수	1968.05.04	윤기철	총무	2000.12.16	이문백
진남	1974.10.26	김정수	청해	2001.07.27	서완석
한려	1981.10.23	조백만	좌수영	2003.11.08	민화기
여천	1991.10.29	황수철	진달래	2006.07.06	신순옥
동백	1994.04.14	채종부	천마	2006.12.23	윤남근
거북선	1997.04.11	이용규			

4) 기타 봉사 단체

단체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화
(새광주.전남모범 운전자회)여수지부	국동 37-51	1998.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교통 지도	641-4064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여수시지대	연동동 716-2	1988.	심장병어린이돕기 거리질서교통캠페인	641-0640
여수익용소방대 연합회	학동 97 여수소방소	1985.	소방업무보조 화재구급구조활동	681-0119
여수적십자봉사관	문수동 6-4	1977.10.26.	우리 고장 답사 및자연 보호 실시 수용시설자원봉사활동	651-5258

7. 관변 단체

1)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1976년 11월 10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참된 보람과 가치를 추구해 가는 실천운동이라고 한다. 1998년 12월 8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제2새마을운동을 선포했다.

여수는 1977년 1월 새마을문고지부를 시작으로, 1980년 1월 새마을부녀회 조직, 1980년 8월 18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조직되었다. 1984년 3월 21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정에 따라 지회(여수시 이정출, 여천시 신인식, 여천군 황용섭)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8년 4월 1일 삼려 통합에 따라 여수시 지회(지회장 주재선)로 통합하였다. 2007년 2월 2일 안산동에 회관을 준공하였다.

문화 시민의식의 선진화 사업으로 태극기 달기, 사랑의 전기 스위치 달아주기, 지역의 활력 찾기 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 돕기 활동, 쾌적한 친환경 조성사업으로 연등천 살리기, 꽃길 조성,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로 이민자 가족 돕기, 사랑의 고추장 담기 등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2)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은 밝은 미래를 만드는 새 정신 국민운동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1989년 4월 1일 중앙협의회가 조직되고, 1991년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여수시협의회는 그보다 일찍 1980년 8월 여천시협의회(회장 신익식) 등 따로 활동하다가 삼려 통합 하면서 통합(회장 임봉택)하여 활동,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두어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 의식개혁사업으로 조형물과 표석을 오림동, 석창사거리, 묘도동, 소라면 등 4개 지역에 세우고, 바르게살기 깃봉 54개를 시 전역에 세워 자발적인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 도덕성을 추구하고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활동하고 있다.

3)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열린 마음 열린 사회', '사랑의 연결고리 만들기',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등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등을 하고 있다.

여수지역에서는 1957년 1월 17일 반공연맹여수여천지부(지부장 김성환)를 창립, 박형량, 주인철, 김신용 등이 지부장을 맡았고, 1989년 4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으로 개칭(지부장 유치현)하였다. 삼려 통합하면서 지부를 통합(지

부장 배재은)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자유수호옹변대회, 고교생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 판문점 및 전방 견학, 자유민주우월성홍보, 조국평화통일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여수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과 독거노인 돕기,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이웃돕기, 신호 지킴이, 산불 예방 및 자연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기타 관변 단체

단 체 명	단체주소	설립일	주요 업무	전 화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	학동 시청로 1	2007.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활동	690-718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수시협의회	돌신읍 우두리 1049	1981.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사항, 범 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결집	690-8366

제 2 장

여성운동

한 창 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제1절 여수 여성운동사

1. 여성단체 태동기

1) 건국부인회

광복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 종로 기독교청년회회관에서 '건국부녀동맹'이 창립했다.

여수에서도 즉시 이에 호응하여 9월 1일 임춘자는 '여수읍 건국부인회장'을 맡아 여성의 단결을 호소하고 조직을 만든다. 당시의 건국부인회는 여성의 단합과 정부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수건국부인회는 중앙의 명칭 변경에 따라 독립축성애국부인회 여수지부

로 개칭, 조직을 정비하고, 주로 생활개선과 의식 계몽 사업을 했다. 적산 가옥 정행사(正行寺)를 차지하고, 박부업을 보모로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때의 원아 수는 고작 10명 내외였으나, 일제 하 군자동 예배당의 선교원처럼 운영하던 유치원의 후신이었다.

2) 여자국민당

광복된 서울에서는 각 도의 여성대표가 모여 여성단체는 아니지만 정당으로서 여성단체의 성격을 띤 여자국민당 발기대회를 갖게 되었다. 임춘자는 1947년 4월 여자국민당 여수읍 지부장을 맡음과 동시에 전남도 대표로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여자국민당의 정강정책은 ① 여권 옹호 및 적극적인 정치 참여, ② 여성 위험 작업 및 야간 노동 금지, ③ 탁아소 설치, ④ 여성 산전 산후 특혜 휴양과 모성보호 등이었다.

이어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잠시 우익은 숨을 죽이고, 좌익 측에서 김수평씨 부인을 중심으로 여성동맹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군이 진주하자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다시 우익 부인회 임원들이 조직 정비를 하게 되었다. 이때의 부인운동은 국가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함께 그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1949년 4월 임춘자는 기독교 순천노회 여자성경학교 전도사 겸 총회 시찰 총무 임명을 받아 순천으로 가게 되었다. 여수 여자 국민당은 자연히 해산되고, 부인회는 잠시 문순성이 회장직을 맡았다.

3) 대한부인회

1948년 2월 중앙에서는 박순천, 유각경, 박승호, 김성실, 최은희, 황신덕, 황애덕, 송금선, 박봉애, 박호선 등을 중심으로 독립축성 애국부인회와 관제 서울시 부인회가 통합하여 새로운 단체인 대한부인회를 발기하였다.

그러나 곧 3월에 발표된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전국적인 조직에 손을 대지 못했다.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이 공포되면서 남·여 평등의 원칙을 법으로 보장하고 여성 정치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상공부장관에 임영신이 입각했다. 그리고 감찰위원회에 박순

천, 박현숙이 임명되었고, 사회부 부녀국장에 박승호, 여자 경찰과장에 황현숙이 등용되어 여성의 행정부 참여가 예상외로 넓었다.

마침내 1949년 5월 2일 서울 중앙여중고 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대한부인회 전국대회를 열고 창립대회를 가졌다. 초대 회장에 박순천, 부회장에 박승호, 유각경을 선출하고 강령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나라를 위해 바치자, ② 우리는 상애상조하여 국민문화를 세우자, ③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자.

사업방침으로는 군경원호와 여성계몽, 불우여성구호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생활 개선사업, 문맹퇴치사업 및 예의범절 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서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실정에 비추어, 부인회에서는 자연히 참정권의 중요성과 투·개표방법, 작대기 기호 설명 선거법 해설 등 선거계몽을 통해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여수에서도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갔다. 1950년 초 당시 여수군 부인 촉탁으로 일을 하던 김처녀(일명 김필신)가 대한부인회 여수지회의 회장직을 맡았다.

2. 여성단체 정체기 (1950-1969)

1) 여수부녀관과 중앙유치원

정부 수립 이후 중앙에서는 여러 단체가 생겼지만 여수는 대한부인회만으로 여성운동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 지회장에는 1950년부터 김처녀가 맡았지만 국회가 개원한지 1개월도 못되어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부인회 임원도 뿔뿔이 흩어졌다.

서울수복 이후 김처녀는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1954년 6월 30일에는 중앙동 507번지 정행사를 불하받아 매입하고, 김처녀 외 24명의 이름으로 '여수부녀관'으로登記했다. 회관을 여수부녀관이라고 한 데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치원 교사로 하자는 유치원 자모회 측과 대한부인회 회관으로 하자는 부인회 측과 맞서 3년 동안 결정을 못했다. 논란 끝에 결국 대한부인회 회관으

로 하면 이 혼란의 시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칫하면 중앙 총본부의 재산이 되어 부인회가 존속이 안 될 때는 여수의 재산만 없애게 된다는 생각을 했다. 따라서 여수부녀관이 옳다는 김치녀, 김성례 등의 주장과 당시 교육감 노현수씨의 자문으로 부인회장이 명예원장을 맡고, 회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하자는 안이 성립되었다.

1956년부터는 교육자 출신 김귀인이 회장을 맡아, 유치원은 날로 번창하였다. 1958년 10월 8일에는 김귀인 원장의 이름으로 중앙유치원은 원생 50명 정원의 유치원으로 인가를 획득하였다.

2) 3·15 부정선거에 휘말린 대한부인회

3·15부정선거의 여파로 당시 여수지회장 김성례도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동마다 선거 유세와 부정투표에 개입하였던 관계로 근신을 하게 되어 단체도 해산이나 다름없는 실정에 빠졌다.

3) 한국부인회 창립

1960년 5월 10일 주인 잃은 대한부인회는 민주당계 부인들이 점령하여 '혁신부인회'라는 간판을 걸고 대한부인회 조직을 인수했다. 여수에서도 오인실(민주당 국회의원 김우평씨 부인)이 지회장을 맡았다.

그러나 10월 중앙에서는 여성계의 지도자 이태영, 황현숙을 중심으로 대한부인회를 부활, 비 정치성을 띤 여성단체로서 새로운 방향의 여성운동을 전개하자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회장은 정치적인 인물을 배제하고 순수한 여성단체로서의 면모로 쇄신하기 위해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규약은 모두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1960년 11월 9일 군사정부 포고령 제6호에 따라 정당 사회단체와 함께 여성단체도 해체되었다. 이후 1년 여 동안 여성운동은 긴 동면에 들어갔다.

1963년 12월 민정 이양을 앞두고 정치활동이 재개되자 사회단체 활동도 재개되어, 1963년 10월 9일 한국부인회가 창립되었다. 여수도 대한부인회 시절의 조직을 재규합하여 김성례를 다시 지회장으로 뽑았다. 이어 1966년부터 조덕순이 한국부인회 여수지회장에 선출, 1969년 11월까지 회장직을 맡았다.

3. 여성단체 중흥기 (1970-1986)

1) 바른 방향을 찾은 한국부인회

1969년 11월 여수부인회 조덕순 회장이 사임으로, 같은 해 12월 2일 회의를 통해 지회장에 이환희를 선출하였다. 이환희는 인사말을 통해 여성운동의 방향만은 바로 잡아가지고 선언, 이로부터 한국부인회 여수지회는 정치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한 여성운동의 방향으로 나갔다.

먼저 각 동 부인회 조직을 완료하고, 여성의 의식개혁과 지위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교양강좌를 했다.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각 동을 순회하는 도량형기 교육과 건전 가정 가꾸기 운동으로 모범 주부 시상, 식생활 개선 운동, 애국애족 정신의 함양을 위해 모든 애국적인 일에 앞장섰다. 그리고 여수 출신 일선장병에게 위문품 보내기를 연례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4. 여성 관련 시설

1) 여성회관

여성회관의 건립은 김재호가 여수시장이 되어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체비지 200평을 (봉산동253-10 매립지) 매입을 위한 예산 300만원을 책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숙자는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중앙동 여수부녀회관의 이사들과 수차에 걸쳐 협의, 중앙동과 봉산동을 합쳐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연차계획으로 봉산동에 우선 강의실과 사무실만으로 단층 98평 규모로 건축할 것을 임원회에서 결의, 범시민운동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1973년 2월 6일 김재호 여수시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인해 여성회관 건립은 난관에 직면했다. 후임 시장은 전 시장이 체비지 매입비로 책정한 바 있는 보조비 300만원의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봉산동 부지를 원점으로 돌려, 여성회관 건립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수차에 걸친 여성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임원과 중앙동 부녀관의 임원들이

숙의 끝에, 1975년 3월 24일 연석회의 결과 봉산동 부지를 매각하고, 교통이 좋은 중앙동에 회관을 건립하여 여수부녀복지회관으로 하여 여수의 여성이 하나로 뭉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여성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지속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의 추진을 이환희, 이홍자, 조덕순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1975년 3월 30일에는 봉산동 소재 부지를 '여수부녀복지회관건립추진회'에 기부하는 것을 승인하고, 10월 5일에는 중앙동 소재 회관을 여수부녀복지회관건립을 위해 명의 변경할 것을 결의했다.

마침내 1979년 9월 10일 중앙동 507번지에 회관건립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1979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명의변경이 승인되어 11월 19일에 김치녀 외 24명은 여수부녀복지회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를 마쳤다. 드디어 1981년 3월 30일에 회관이 준공, 3월 31일 회관건물의 등기를 완료했다. 그리고 5월 2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2) 종화동 여성문화회관

1998년 2월 1일 종화동 797번지에 여수시가 임시로 공유재산 건물 1동을 여성문화회관으로 무상 대부하였다. 시설은 341.54㎡이고, 1층은 소비자 고발센터, 2층은 사무실, 취미 기능 교실, 상담실, 3층은 아나바다 장터로 이용하였다.

3) 미평동 여성문화회관

2001년 5월 23일 미평동 591-9번지의 1필지, 옛 여수농촌지도소 자리에 여성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7월 21일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02년 12월 30일 어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렵게 공사를 착공하였다. 2003년 12월 12일 공사를 완성하였다.

3,049㎡ 부지에 건물 연면적 1,920㎡,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었다. 210석 규모 대강당 1실, 소강당 1실, 강의실 7실, 사무실 1실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관리 운영은 시청 가정복지과 여성회관담당 조직 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여성을 대상으로 26개 과목의 정규 프로그램과 5개 과목의 야간 프로그램, 기타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4) 여성인력개발센터

2002년 1월 18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여수YWCA가 운영하고 있다. 2001년 5월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설립된 이후, 센터 설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면서 현대웨딩프라자 1층에 여성전문 취업훈련 기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주요 시설로는 조리실, 제과·제빵실, 양재실, 스포츠마사지실, 피부관리실, 컴퓨터실, 강당, 5개의 강의실, 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으로 되어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으로 전문직종, 자격증 과정, 아동지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무료훈련으로 실업자훈련, 여성가장 실업자훈련, 고용촉진 단기적응 훈련, 여성 직업훈련, 사회 취미교육, 복지시설로 무료 놀이방, 식당운영, 산모도우미와 전문 간병사 파견과 같은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하고 있다.

5) 기타 여성 관련 시설

‘여수사랑의 집’은 1992년 4월 1일 설립된 시설로 19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30명을 보호하면서 무료숙식을 제공하고, 인성변화 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의료급여 제공 등을 한다.

‘여성쉼터’는 1999년 2월 2일 가정폭력 피해여성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요보호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제공과 자활지원을 한다.

여수의 상담기관으로는 ‘여성 상담센터’는 1999년 4월 23일 여서동 226번지에 설치되어 가정폭력과 청소년문제, 기타 제반 여성 및 가족과 상담하

여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한다. 전남 여성 1,366명은 1998년 1월 1일 학동 182-14번지에 설치되어, 성폭력과 아동학대, 가출, 유흥 등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여성이 보호 요청할 때 전화 상담하여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일을 한다.

‘성폭력 상담소’는 2002년 7월 12일 설립되어 교동 611-6번지에서 성폭력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여성현장상담센터’는 2005년 4월 8일 공화동 750번지에 설치되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장 방문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제2절 여성단체

1. 여성단체 협의회

1970년부터 한국부인회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단체가 지회조직을 시작했다. 여수에서는 여성저축생활운동회 여수지부(지부장 박순심)가 발족, 이어 1971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 여수지구 부녀봉사회가 조직되고, 그 해 10월에는 주부교실 여수지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10월 22일 회장에 정숙자(당시 김재호시장 부인), 부회장 이환희가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창립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가입단체는 백합회(여수시청 간부직원 부인회), 한국부인회 여수지회, 여성저축생활운동회 여수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여수지회, 대한적십자사 여수지구 부녀봉사회, 동백어머니회(초등학교 육성회 임원) 등이다.

이밖에 자생단체인 소화회가 참여하여 여성단체협의회는 1972년 12월 28일 총회에서 여성회관 건립을 1973년도 사업으로 채택하고 여성회관 건립 추진위원장에 정숙자를 선임하였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 후 여성저축생활운동회가 해산되면서 새마을봉사대가 가입하게 되고, 다시 새마을봉사대가 해산되어 가입단체는 여수시청 백합회, 한국부인회 여수지회, YWCA, 대한어머니회, 주부교실, 새마을부녀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적십자부녀봉사회, 한국근우회, 미용사회, 부녀소방대, 여수어머니노래회, 여성라이온스클럽, 자유총연맹부녀회 등이었다.

협의회 회장에는 이환희, 부회장에 강정희, 임원은 문선임, 안선주, 정귀례, 김순희, 박복희, 초용숙, 서정금, 박점숙, 박수성, 김행자, 정숙자, 임숙자, 김춘자, 이연자 등으로 각 단체 간의 유대와 사업협조 등 친목을 도모하면서 여성의 지휘향상과 의식개혁, 소비자 보호운동, 합동 결혼식 주선 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1983년부터는 연도 초에 총회를 겸해 주부시민대학을 개강하였다.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 주요 활동은 첫째, 경제 살리기 운동으로 씹씹이를 줄여 저축 늘리기, 둘째, 환경보전과 정화운동으로 관광유적지 쓰레기 줍기, 바다 살리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셋째, 건전 여가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향토음식 보급, 건전문화 주부교실, 취미교실 운영, 넷째,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전개로 사회복지시설과 불우가정 돕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현재는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바른선거모임, 바르게살기운동여성모임, 근우회, 대한어머니회, 주부클럽, 새마을부녀회, 미용인협회,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자유총연맹여성회, 여성유권자연맹, 여성자원봉사센터, 향군여성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이안자(주부교실), 부회장 박소방(한국부인회), 박인숙(유권자연맹), 총무 김임실(바른선거모임), 감사 유남순(주부클럽), 광정애(자유총연맹) 등이다.

2. 주요 단체

1) 한국부인회

1963년 10월 9일 대한부인회의 조직을 바탕으로 창립되었다. 목적은 애국 애족 운동과 가정 및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여권수호와 근검절약 정신을 실현한다.

강령으로는 “힘을 같이 합쳐 나라를 받들고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 참된 자립적 정신을 배양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여권을 수호하자, 미

풍양속을 지성에서 빛내고, 사치 안일을 박차 근로재건에 매진하자.” 이다.

여수지역에서는 여성운동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서는 대한부인회 시절 김처녀, 김귀인, 김성례, 한국부인회 시절 김성례, 조덕순, 이환희, 김미자, 정영희, 여천군은 강정업, 이덕자, 박소방 등이 회장을 지냈다. 1998년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초대회장은 여천시 회장이었던 장정자가 맡았고, 이후 박소방이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사업은, 자연정화와 공정선거 가두 캠페인 전개, 소비자 교육과 환경 교육과 같은 시민의식화 교육사업, 건전 소비와 의식개혁 결의대회, 저울 도량형기 사용 계몽, 나무심기와 같은 푸른 동산 가꾸기 운동, 이동 소비자 상담실 운영, 농번기 일손 돕기 사업, 여수 출항 국군장병 위문사업, 불우이웃 돕기와 지역 봉사활동, 알뜰시장 바자회, 검소한 생활을 위한 세미나 및 바자회, 어린이와 청소년 초청 위안 잔치, 지역 특산물전 운영, 자연보호사업,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사업 등을 하였다. 특히 소비자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YWCA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실천함으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2년 4월 20일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가 창립되어 1924년에 세계 YWCA에 가입하였다.

YWCA에 뜻을 가진 분들이 여수에 YWCA를 창립시키고자 2차례 무한한 노력을 해온 바 있었으나 YWCA로써 정식 발족을 보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다. 그러던 중 YWCA의 필요성을 느낀 시내 여성들과 여수국가산단 여성들이 함께 모여 1979년 봄부터 YWCA 목적 아래 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

‘성서 연구’가 모태가 되어 여수에서는 1981년 4월 17일 YWCA 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 5월 26일에는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25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회장 정숙자)를 갖고 정식 발족하였다.

24명의 이사들이 힘을 모아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장한의원 3층 예총회관 내의 회관에서 정종화내과 2층을 거쳐 현재 여서동 회관에서 여성단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요 사업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지도력 계발(여성리더자 교육, 양성

평등교육 등),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과 야간 하교길 지킴이단 운영, CA활동, 청소년자치기획단, 청소년 어울마당, 각종 캠프, 봉사활동 등이다.

아울러 소비자 상담 활동, 고령자 구인, 구직 등의 직업 지도 및 취업 알선,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업 상담, 정년 퇴직자의 재취업 등과 사랑의 호스피스 봉사활동으로 말기암 환자를 비롯하여 입원 환자, 가정 방문, 사별 가족 방문하여 돌보기, 장애우를 위한 사업, 사회 문제 연계하여 환경, 음식물, 물가조사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모니터하여 조사 연구 및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부설 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와 전남1366상담센터, 여성상담센터,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요보호 아동 그룹홈, 재활용센터, 초록어린이 지역아동센터, 성매매현장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는 정숙자 초대 회장부터 임정자, 안선주, 한숙자, 김혜숙, 최정자, 정금희, 조효순, 유도희 등이다.

3) 주부교실

1971년 8월 뜻있는 여성들이 모여 주부들 대상의 재교육을 통한 자질함양으로 가정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부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일반 주부들의 공통관심사인 자녀, 남편,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를 지역중심으로 모여서 개선책을 알아보고 가정생활에 접목함은 물론 사회에 파급하는 지도자적 주부를 배양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다.

단체명은 설립 취지가 주부들 대상의 교육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전국주부교실중앙회로 정하고, 회원은 초등학교 자모들 중심으로 모집하여 1971년 12월 3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여수에서는 1971년 4월 2일 창립하였다. 역대 지회장으로 김정현, 윤복희, 김숙자, 박수정, 문선임, 이안자 등이다. 1년에 4번(3월, 5월, 9월, 11월) 주부 교실을 개강하고, 회원은 주로 각 학교 자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교양강좌, 건전가요보급, 식생활 개선사업, 안보교육, 의학상식 등 생활 합리화 운동사업, 불우이웃돕기운동, 군경위문, 고아원 일일 어머니 활동, 식생활 개선 시식회, 전국 지역특산물 개발, 바자회,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등이다.

4) 새마을부녀회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마을정신을 함양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단체였지만, 1980년부터는 민간단체로 육성되었다.

여수시에서는 1971년 11월부터 여성단체협의회의 정숙자와 이환희가 각동을 순회 새마을정신과 의식개혁 교육을 하면서 동 부녀회 26개를 조직했다. 이때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 1만원이든 저축통장을 기금으로 주었다.

창립할 때 조직의 산파역은 한국부인회 여수지회장인 이환희가 맡아 2년간 일을 했다. 조직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운순이 회장을 맡았다. 여천시는 강풍자, 여천군은 최용업이 맡았다.

삼려 통합이 되면서 1998년 4월 1일 제10대 부녀회장으로 서기덕이 취임하였고, 제11대 유남순, 제12대 조인자, 제13대 조래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5) 대한어머니회

어머니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강력한 국가는 깨달은 어머니로부터,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든다'는 슬로건 아래 자기개발과 자아의식을 고취하여 민주적인 가정,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 목적으로 1958년 3월 17일 창립되었다.

여수에서는 1990년 3월 9일 이연자, 문순덕, 김예자, 윤향순 등이 여수지회(지회장 이연자)를 창립하였다. 그동안 여성교양 및 의식개혁사업, 낙도어린이 초청위안회, 무료 경로식당, 알뜰시장 개설,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지급, 경제살리기 운동, 청소년 용돈 기입장 교육,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내고장 바로 알기 운동 등을 하였다.

6)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회

적십자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인종적인 차별 없이 인간의 고통을 덜게 하여 인류의 평화 달성에 봉사하는 범세계적 운동이다. 사랑과 봉사로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복지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역대지회장으로

는 김정순, 김진숙, 김문자, 강정희 등이다.

회원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은 재해구호활동, 극빈 산모 돕기, 군경위문, 근로청소년 불우이웃돕기, 무의탁 노인 돕기, 아동 가구주 돕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등을 한다.

7) 함께 하는 여성회

1994년 4월 이연숙, 박해선, 김행숙, 김경화, 이순애, 김향훈, 김미경 등 10 여명의 진보적인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요구를 담은 여성단체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하는 여성회(회장 김미경)'를 창립했다.

주로 학습과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 여성 정체성을 찾고, 역량을 강화하는 일, 여성문제 상담, 양성평등 활동 등을 하고 있다. 1998년 8월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지하였으나, 내부 독서 토론, 역사 학습을 계속 하다가, 2004년 12월에 재 창립(회장 이옥금)되었다.

8) 생활협동조합

여수YMCA에서 아기스포츠단 활동을 하는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1992년 6월 18일 우리 농산물 먹거리 소비를 위한 생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YMCA 산하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순정)을 만들어,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운동과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활동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기동에 (사)아이쿱(iCOOP)생협 판매장을 개설했다.

9)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의 예방 활동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 상담소인 여수성폭력상담소(소장 강정희)를 만들었다.

2002년 6월 25일부터 상담활동을 시작, 7월 12일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8월 28일 개소식을 가졌다.

주요 활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활동, 고통 해소 및 권리구제, 재활을

돕고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와 법률지원, 심리치료를 통한 피해자 돕기,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학교의 예방교육 및 캠페인, 조사 연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10) 그 밖의 단체

여수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회장 최학심)는 1989년 10월 19일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랑을 실천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생단체로 조직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및 캠페인, 여객선 터미널 무료 경로식당, 역전 행걸인 옷 갈아입혀 보내기, 불우학생 김치 담아주기, 사랑의 상담실 운영, 불우가정 염 무료봉사, 교복 물려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여수부녀 소방대는 1977년 7년 19일 발대식을 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조직 활성화에 힘쓰고 각 가정에 소방지식 보급을 하고, 화재예방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여수 부녀소방대의 대장으로는 임숙자가 창단 때부터 1986년 12월까지 이끌어왔고, 그 뒤를 김자원, 정정순 등이 역할을 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 여수부녀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1989년 4월 1일 창립, 주요 사업으로는 6·25 홍보사업, 자유 수호 웅변대회 백일장, 각종 캠페인 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군부대 및 경찰위문활동 등을 하였다. 역대 회장은 정정순, 박옥심 등이었다.

여수어머니노래회는 1966년 8월 27일 건전한 노래부르기로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주요 사업은, 일본 가라쓰시 합창단 초청 공연, 전국여성합창대회 등 각종 합창제 참가, 순천교도소 위문공연, 자선음악회 참가 등이다. 역대회장으로는 김정순, 박경애, 팽인자, 강정희, 안오순, 최명자, 문인자, 옥경숙 등이었다.

11) 해산 단체

'여성저축생활운동회 여수지부'는 1968년 창립하고, 1974년 해산된다. 국가의 경제개발사업을 위해 자금동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 장려의 하나로 조직된 단체이다. 새마을부녀회가 조직되면서 부녀회에 저축 장려 부서

가 생겨, 사실상의 기능을 잃고 점차 퇴색하여 1974년 말에 해산하고 말았다. 창립부터 해산까지 회장은 박순심이였다.

‘새마음봉사대(구국봉사단)’은 1974년 4월 창단, 1979년 10월 해산되었다. 1974년 4월 박근혜가 단장이 되어 젊은 여성들로 구국봉사단을 조직하였다. 이어 전국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마다에서 각 구, 시·군 조직을 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키워갔다. 여수에서도 타지방과 마찬가지로 임원진의 조직에 착수, 동 조직까지를 관의 지원으로 마쳤다.

회장은 강춘자가 맡았지만 지나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다른 단체에서 원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 조직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실상 해산되고 말았다.

‘소화회’는 남몰래 피어도 즐거운 꽃들을 자처하면서 가장 어렵고 불우한 곳을 찾아 소리 없이 돕고, 장학생을 열심히 키운 여수 지성의 상징적 모임이라 할 수 있다. 1965년 9월 19일 발족, 지성인으로서 지적향상과 인격함양을 도모하고, 사회봉사와 향토개발에의 적극 참여, 학구열에 넘치는 불우 학생의 장학사업, 가장 불우한 곳 남몰래 내 가족처럼 돌보기, 독서회 운영으로 상호 교양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대 회장은 이환희가 맡았고, 여수출신 일선 장병에게 위문대를 매년 100개를 보냈고, 들국화합창단 등 기타 불우 시설 돕기 등을 하였다. 1977년 11월 회원 다수가 타 지방으로 이사하여 해산되었다.

제 3 장

언론 및 출판

이 상 율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준비위 집행위원장)

제1절 여수의 언론사

1. 여수의 신문 역사

여수의 신문 역사는 현재까지의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물론 그 이전에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이 여수에서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192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여수 지역에 보급망을 갖추고, 기자가 주재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여수의 지역 신문은 1945년 광복 이후 발간한 신문이다. 즉, 1945년 광복 이후 박병호가 발간한 『대중보』와 이진문이 발간한 『광복시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대중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음 이 신문은 8절 크

기 프린트물로 발행되었다가 1년 뒤에는 타블로이드판에 활자 인쇄로 발간되었다. 이어서 1946년 11월 1일 미군정청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1947년 6월 합법적 신문이 되었다.

이후 『대중보』 사장 박병호는 정재완과 합병에 합의하고, 1947년 8월 1일, 15명을 주주로 하여 대중신문사를 설립했다. 여기에서 본격적인 여수 지역의 신문인 『여수일보』가 발행되었다. 타블로이드판 4면이었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발생 이후에는 『인민보』가 발행되었는데, 내분으로 정간과 속간을 거듭하다 5·16쿠데타 직후에 시설 미비를 이유로 폐간되었다. 그런가 하면 박병호는 『여흥일보』, 신양남은 『여순신보』를 창간했다.

여수지역 최고의 신문인이었던 박병호는 1965년 언론 규제가 완화되자 같은 해 6월에 주간으로 『여수경제신문』을 타블로이드 4면으로 창간했다. 그리고 1966년 1월 제호를 『새한경제신문』으로 바꿔 발행했다. 그리고 박병호는 다시 1966년 7월 1일 주간 타블로이드 4면으로 『여순산업신보』를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1,070호를 끝으로 1980년 7월 31일 폐간되고 말았다.

한편 1980년대 말 언론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수에도 지역신문이 창간되었다. 『한남일보』가 1년여의 준비 기간 끝에 정정균에 의해 1990년 6월 창간되었다. 그러나 이 신문도 광고 수입 저조,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1991년 9월 폐간되었다.

한편 『한남일보』 폐간 이후 1990년대 여수지역의 신문은 소식지 및 정보지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1992년부터 1993년 사이에 『한려신문』·『까치정보』·『교차로』·『벼룩시장』 등이 다시 지역에 나타났다. 그리고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여수반도신문』, 『한려신문』, 『까치신문』, 『교차로 저널』 등의 지역 신문이 발행되었다.

1999년 12월 무가지인 『진남신문』이 주 2회 발행되다가, 이듬해 11월 『여수저널』로 제호가 바뀌어 발행되었다.

2000년대 여수지역에서는 다시 일반 신문의 간행이 눈에 띈다. 교차로정보신문사에서 2001년 6월 『여수투데이』라는 일반 주간신문을 발행했는데, 2003년 6월 폐간되었다. 또, 『삼려신문』이 『여수반도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가 다시 『여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2004년 『새여수신문』이 창간되어 『남해안신문』으로, 2005년 『여수로신문』이 창간되어 『큰여수신문』으로 변경하여 발행하고 있다.

2. 여수의 방송 역사

여수지역에서는 1957년 KBS가 들어오면서 지역방송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57년 9월 여수지역의 방송국 설치를 위해 이동방송 차량을 통한 중앙 라디오방송의 시험방송이 시작, 10월 1일 여수방송국(HLCY)이 개국하게 되어 여수지역에도 전파가 퍼지기 시작했다.

KBS 여수방송국은 이후 국영방송으로서 중앙의 방송을 1960년대까지 충실히 중계하였다. 1970년에는 상업방송으로 남광복송(NBC)이 개국했다.

남광복송은 매일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뉴스와 광고까지 보내주어 다른 방송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1973년에는 KBS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변모하였다.

1975년 7월에는 TV공청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 여수지역에는 51,802대의 텔레비전이 등록되었다.

여수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은 1980년대의 컬러텔레비전 시대를 거쳐 1990년대에 TV뉴스를 자체 방송하는 시대를 열었다. 즉, 관문동에 KBS 여수방송국, 문수동에 여수문화방송이 입주했다. 그리고 1999년 12월 15일 안산동에 광주방송(KBC) 동부센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2004년 10월 1일에는 KBS 여수방송국이 KBS 순천방송국에 통합되어 지역의 언론이 크게 축소되었다.

3. 최근 현황

언론 출판의 핵심 운전기 시설이 여수에는 전무하다. 따라서 지역신문 대부분이 광주에서 인쇄를 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의 지출과 부수의 제한이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여수에는 「여수신문」·「남해안신문」·「큰여수신문」·「남도문화저널」·「동부매일」이, 인터넷으로 「여수인터넷뉴스」·「여수닷컴」·「브레이크뉴스」가 발행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여수지역에서 주재기자가 상주하고 있는 매체는 지방지의 경우 「광주일보」·「전남일보」·「전남매일」·「광남일보」·「무등일보」·「남도일보」·「광주매일」·「호남매일」·「호남일보」·「대한일보」·「전남도민일보」·「전광일보」·「아침신문」 등이 있다.

방송사와 통신사의 경우, 연합뉴스·뉴시스·KBS·MBC·KBC·CBS·DBS 등 7개사, 전국 일간지는 『경향신문』·『신아일보』·『전국매일』·『시대일보』·『아시아일보』·『해동일보』·『서울일보』·『내외일보』 등 8개사의 신문이 있다.

2008년 현재 여수시는 『남해안신문』, 『여수신문』 등 8개의 주간지와 『여수인터넷뉴스』가 있다. 그리고 9개의 중앙 일간지 및 12개의 광주 발행 일간지의 지국, 지사가 있다. 또한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거북선 여수』라는 소식지도 있다.

제2절 언론기관

1. 신문사

1) 여수일보



▲ 여수일보

광복 이후 여수에서 최초의 신문 발행은 1945년 9월 10일 주간신문 『해방시보』였다. 그후 대표적인 여수의 지식인 정재완은 공직생활을 그만 두고 지역에 언론기관을 만들고자 낙향, 주주를 모아 『대중일보』를 매입하여, 1947년 8월 1일 대중신문사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당시 창간 주요 멤버는 사장 정재완, 편집국장 조종웅, 그리고 신양남, 김원배, 박병한, 김채주 등이었다. 사옥은 중앙동 '월세계' 다방 자리였던 목조건물 2층이었다.

대중신문사는 여수공예사의 주선으로 4페이지를 발간할 수 있는 평판 인쇄기 1대에 활자(2호, 4호, 6호)와 조판시설을 갖추고, 수작업으로 신문을 만들어 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전라남도 동부 6군을 대상으로 보급

되었다. 1948년 1월1일 『대중신문』에서 『여수일보』로 제호를 바꾸었다.

『여수일보』는 여수지역만이 아닌 인근 순천 등 동부 6군으로 보급망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순천과 광주의 독자 수가 월등히 많았다.

1948년 여순사건 때 『여수일보』는 사건의 한 가운데 있게 된다. 남로당 여수군당은 신문사를 접수하고, 신문의 발간을 중지시키고, 대신 『인민보』를 발간했다. 이후 국군의 토벌작전으로 여수일보사는 불에 탔다. 1949년 5월 15일 『여수일보』는 속간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다시 발간이 중지되었다.

1950년 10월 관문동 태화수 자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951년 5월 정상적으로 『여수일보』를 발간했다. 그러나 1961년 5월 23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11호에 의해 폐간되었다.

2) 여순산업신보

5·16혁명 후 박병호(朴炳昊)는 주간지인 『새한신문』 발행허가를 받아 타블로이드판 주간지를 발행해 지방소식 보도에 앞장섰다. 그후 1966년 7월 1일 『여순산업신보(麗順産業新報)』로 제호를 바꿔 발행하다가 1975년 12월 박종대(朴鍾大)가 인수하였고, 이어 김정수가 인수하여 신문사를 법인화시켰다. 수석이사 김정수(金正秀), 대표이사 김충조(金忠兆), 편집국장 박보운(朴甫雲) 등으로 운영진이 구성되었다.

1980년 7월 31일 군사정권의 언론사 구조조정에 따라 지령 1,070호로 폐간 조치되었다.

3) 여수신문

학동에 있는 여수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지역 주간 신문으로, 1994년 『삼려신문』이 창간되었다가, 1997년 『여수반도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 2004년 『여수신문』으로 제호를 정해 간행했다.

신문의 지면은 한 주간 여수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이슈를 머리기사로 하고 3~4개의 기사를 추가로 구성했다.

창간 초기의 제호에서 알 수 있듯이 『삼려신문』은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의 지역 소식을 담았고, 1997년 『여수반도신문』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지역

소식과 함께 삼려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4년 제2대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황선희가 취임, 통일교 재단인 일상이 인수하였다. 주 1회, 매주 목요일 발행하고, 기사는 인터넷 판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4) 남해안신문

학동에 있는 남해안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지역 주간 신문으로, 2004년 『새여수신문』으로 창간했다. 3주년을 맞아 2007년 『남해안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창간인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판 형식으로 발행된 『남해안신문』은 한 주의 최대 이슈를 1면에 배치, 3~4개의 기사를 추가로 실는 체계를 갖고 있다.

2007년부터는 전라남도 동부권(순천·광양)란을 두어, 인근 지역 소식도 실고 있다. 광고는 많지 않다. 열악한 재정, 적은 부수 때문에 관공서 위주의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 1회, 매주 목요일 발행, 긴급한 뉴스가 발생하면 호외 4면을 제작하기도 한다. 아울러 기사는 인터넷 판으로 검색 가능하다.

5) 동부매일신문

둔덕동 501-7번지에 신문사가 위치하고 있다. 2007년 12월 20일 창간했다. 창간호는 20페이지의 분량으로 8만부를 인쇄, 여수시 전역에 배포되기도 했다.

6) 여수인터넷뉴스

선원동에 있는 여수인터넷뉴스사에서 공급하는 인터넷 신문이다. 1995년 9월 지역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다.

『여수인터넷뉴스』는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여수 지역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과 전국 주요 뉴스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면은 인사이드, 생활정보, 홈페이지 정보, 포토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뉴스를 별도의 콘텐츠로 독립시켜

놓았다. 독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포토뉴스, 독자포토뉴스, 나의 포토 등의 코너를 두고 있다.

7) 여수 교차로

둔덕동에 있는 여수교차로에서 발행하고 있는 생활정보지로, 1992년 5월에 창간되었다. 전국적으로 정보신문 발행 붐이 일었던 1990년대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정보지로 출범했다.

『교차로』는 지역마다 사업 주체나 투자자는 다르지만, 일종의 체인점 형태로 문을 열었고, 다른 정보신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폭넓은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여수)교차로』는 8절 크기의 타블로이드(tabloid: 364 257mm) 판, 주 5회(월~금) 50면 전후로 간행하고 있다.

『교차로』의 지면은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두고, 구직과 구인, 모집과 알림, 부동산정보, 금융정보, 자동차정보, 금융광고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발행 초기에는 30면 안팎으로 주 1회 내지는 주 2회를 발행했고, 주 3회 발행을 거쳐 1990년 중반 최초로 주 5회 발행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0년 6월에는 『여수투데이』라는 제호로 일반 주간신문을 2년여 동안 발행하기도 했다.

8) 까치정보

미평동 까치정보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생활정보지로 1992년 10월 창간되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주로 다루며, 자동차와 물품 매매 등의 생활 정보를 담은 지역 생활 정보신문 창간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에 여수에서도 간행된 신문이다.

지면 구성을 보면, 1면에는 여수 지역정보가 주 내용을 이루고, 명함 크기의 광고 10여 개를 수록하고 있다. 2면에서 5면 사이에는 자그마한 지역 소식을 담고 있다.

2007년 포털사이트인 여수닷컴(<http://yosu.co.kr>)을 제작했다.

한 동안 『까치정보』를 비롯한 정보신문의 효과는 상당히 높았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일이었다.

IMF 때 많은 매물 정보로 특수를 누렸다. 이후 다른 정보신문과 경쟁은 불

가피했고, 2000년대 발행 면수를 줄이면서 주 5회 발행하고 있으며, 판형은 8절 크기 타블로이드이다.

2. 방송사

1) KBS 여수방송국

관문동에 있었던 KBS 산하 지역 방송국이다. 이 KBS 여수방송국은 남해안 지역에 중앙방송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수이동방송국이였다. 1957년 10월 주파수 1,360kc, 250W 출력으로 첫 전파를 내보내면서 시작하였다.

방송국의 발전과정을 정리해 보면, 1961년 6월 각령 제22호로 지방 방송국으로 승격, 1964년 9월 관문동 163번지에 청사를 신축 이전, 출력 1kW로 증강, 1965년 250W 출력의 순천중계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1968년 신월송신소 개소, 1971년 망운산 TV 중계소(ch 4)를 설치하여 TV 중계를 시작하였다.

1973년 3월 KBS가 한국방송공사로 되면서 여수방송국도 한국방송공사 여수방송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1989년 관문동 8-7번지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1994년 8월부터 지역 TV 방송을 시작, 2003년 한국방송공사 2라디오 FM 방송을 개시하였다.

마침내 한국방송공사의 지역국 통합 작업에 따라 2004년 10월 1일 순천방송국으로 통합되었다.

KBS 여수방송국의 주요한 성과로는 지역 소식을 취재 보도하고, 관심 있는 이슈를 주제로 토론 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여수 진남제, 순천 팔마제, 광양 백운제, 고흥 풍양제, 구례 약수제 등 지방 문화 활성화에도 공헌한 점이다.

2) 여수문화방송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화방송 계열의 지역 방송사로, 1970년 8월 27일 남해방송으로 개국했고, 1971년 10월 여수문화방송으로 회사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한 방송국의 발전과정을 정리해 보면, 1984년 8월 여수시 구봉산에 TV 중계소 설립, 1985년 8월 음악FM을 개국, 1987년 11월 21일 TV 연주소를 개국 및 지역 TV 뉴스 방송을 시작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88년 2월 표준FM 방송을 비롯하여 1991년 11월 지금의 위치로 사옥을 신축 이전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1994년 7월 TV 중계차를 도입, 현장 생방송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 11월 현 사옥에 야외 공연장을 준공, 2000년 8월 TV 주조를 제작시설과 송출실로 분리했다. 그리고 2002년 8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유선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본 방송국은 보도·교양·오락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라디오는 1일 24시간체제를 구축하고, TV는 20시간 방송하고 있다. 방송 이외에 지역민의 문화 욕구와 교양 제고를 위해 매월 '교양강좌' 및 '임신육아교실'을 열고 있다. '해외문화탐방'과 'MBC마당놀이'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표 이사체제로 경영국, 제작국, 보도국, 기술국 등 4국 7부 1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 43,000㎡, 연면적 5,016㎡ 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이다.

3) KBC 동부방송센터

안산동에 있는 상업방송 중계소로, KBC(광주방송)가 전라남도 동부 지역까지 TV와 라디오 중계 서비스 권역을 넓히려는 일환으로 개소한 조직이다.

즉, 1999년 12월 15일 KBC가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시와 광양시 지역에 TV와 라디오 중계 시설을 갖추고 KBC 동부방송센터를 열었던 것이 그 출발이다. 1990년 SBS가 출현하면서 광주의 KBC를 가맹사로 두었고, KBC가 방송권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KBC 동부방송센터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역사랑 캠페인', '여수사랑', '광양사랑' 등의 지역과 지역민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을 전개하고, 또한 시청자위원회(15명)를 1년에 3~4회 개최, 여기서 거론된 내용을 본사에 전달하면서 프로그램이나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 시간은 TV는 1일 19시간, 라디오는 24시간이다. 각 지역별 중계소 위치와 채널은 TV는 구봉산 여수 60, 봉화산 광양 26, 남산 순천 37이다. 라디오는 96.7MHz(출력 1kW)이다.



4) 각종 유선 방송

2007년 현재 여수에 여러 유선방송 업체가 설립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주요 유선방송은 조일유선방송·동부유선방송·여천유선방송·돌산유선방송·남면유선방송·덕양유선방송·화동유선방송 등이 있다.

여수 지역의 최대 유선방송은 조일유선방송이다. 그러나 이 회사도 1995년 케이블 방송의 출범과 위성 방송의 출현 등으로 다채널 유료 방송에 밀려 점점 그 규모가 위축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한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을 통해 2만 세대 이상의 유선가입자를 확보했다.

결국 조일유선방송은 2007년 5월 31일 자산 양도 계약에 따라 순천동부케이블방송(DBS)에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 케이블 유지와 보수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3. 잡지

1) 여수여수사람들

2008년 1월부터 발간된 정기간행물인 월간 시사지 『여수여수사람들』은 김선곤 편집장에 의해 발행되는데 여수 시정과 의정, 산업경제, 환경복지, 여수인물들에 대해 심층 취재, 보도하고 있다.

제3절 도서 및 출판기관

1. 신간 서적 전문점 :대양서림

교동에 있는 종합 서점으로, 설립자는 이동림이다. 1952년 2층 건물로 시작되었다. 1989년 여수 시내 4층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여서동에도 분점을 냈으나, 현재 대양서림

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은 교동의 본점과 여서동 분점 뿐이다.

대양서림은 2002년 개점 5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을 위한 기념행사 '책과 함께 50주년 그 반세기를 넘어'를 마련했다. 아울러 '책을 읽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습니다.'라는 사진 공모전을 함께 열었다.

교동에 있는 본점은 4층 건물로, 2층에 아동, 소설, 초등학습 관련 서적, 3층에는 중고등 참고서, 어학, 음악, 경제, 경영 관련 서적, 4층에는 일반 공무원 수험서, 컴퓨터, 미술, 해양 관련 서적을 구비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규모의 서점으로는 나라서적(신기동), 한려서점(여서동), 대동서점(여서동), 한빛서점(선원동), 중앙서점(동산동), 문화서점(안산동), 천일서점(덕충동), 세종서점(관문동), 충무서점(미평동), 영진서점(중앙동), 가을서점(여서동), 동아서점(울촌면), 참빛서점(선원동), 삼성서점(중화동), 선경서점(미평동), 뿌리서점(문수동), 천성서점(덕충동), 여수서점(덕충동) 등이 있다.

2. 헌책 전문 서점 : 형설서점

고소동 641번지 여수경찰서 옆에 있는 헌책 전문서점으로, 설립자는 조화익이며 1990년 10월에 시작하였다.

1층에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책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일반 서적을 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특히 각종 여수 관련 서적과 고서, 민속자료 등을 구비하고 있다.

3. 출판사 및 인쇄소

2007년 현재 출판사는 조은기획(커뮤니케이션 조은), 일문당, 현대음악출판사, 서울기획 등을 포함하여 16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인쇄소는 96개이다.

